

호남학 산책

문화재창



문화재창

광주목의 인재 양성과 성현 봉사, 광주향교	5
벽진서원, 고다산성, 가래치기, 향토문화유산	13
법성진에서 본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올린 치계문, 1774년	21
희경루,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다[咸喜相慶]	29
전라병영을 찾은 사람들과 민속 생활사 현장	37
신석기시대의 광양 벼굴과 고려시대의 별교 꼬막, 특산물	46
해남의 경관 명소, 어성교와 남천교(홍교)의 중창석비	54
신명나는 쇠가락, 깊이 울리는 양복 소리, 농악	63
1914년과 1938년 사진으로 읽는 민속무형유산, 강강술래	72



광주목의 인재 양성과 성현 봉사, 광주향교

광주향교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광주목의 인재양성과 풍교를 다스리고 성현을 봉사하는 문화교육공간이었다. 이는 태조 때 각 주군에 흥학교령(興學校令)을 반포하고 제도 안찰사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수령들을 고과하는 법을 삼도록 한데서 비롯되었다.

광주향교가 처음 자리잡은 곳은 서석산(무등산) 장원봉 아래였는데 호환이 잦아서 성안으로 옮겼다. 막상 성안 저자거리로 향교를 옮기자 시정의 소란스러움에 학교의 풍취를 잃었고, 게다가 지대가 낮아 홍수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권수평이 부임하여 읍치 서쪽 2리 현 위치로 옮겼다.

장원봉 : 곧 무등산의 지봉이다. 속설에 향교가 옛날에는 이 봉우리 아래에 있었는데, 이 고을 사람 중에 장원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 한다.(壯元峯 : 即無等山支峯 俗傳 鄉校舊在峯下 邑人中 壯元者多 故名 ; 『신증동국여지승람』 35 광산현 산천 신증조)

향교 : (광산)현의 서쪽 2리에 있다. 옛날에는 성안에 있었는데, 현감 권수평이 이리로 옮겼다.(鄉校 : 在縣西二里 舊在城內 縣監權守平移構于此 ; 광산현 학교조)

수령 권수평의 향교부흥과 향민 교화

권수평은 1488년(성종 19) 부임한 이후 고을의 폐단을 없애고 적체된

옥사를 처리하면서 민생을 살폈다. 특히 향교 재정을 위하여 사재를 출연하였다. 권수평의 치적은 성현(1439-1504)이 1500년(연산군 6) 11월에 지은 『광산향교 중수기』에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은 이종사촌 동생인 박이온(朴以溫)의 말로 서술하여 백성들의 중론이라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허백당집』에 실려 있다. 권수평이 자는 정숙(正叔), 본관은 안동이다. 1483년(성종 14)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균관전적을 지냈다.

권수평은 향교 앞 백성의 땅을 사들여 논과 채마밭을 만들고, 또는 향교 소속 노비들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또 백성들의 밭을 사서 반은 향교에 기부하고, 반은 사마재에 주어 재정의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 또 세금으로 들어온 면포(綿布) 백필, 쌀 백석, 콩 20석을 향교 교생들의 비용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교생들의 면학을 위하여 사서, 오경, 제자서, 운서(韻書) 등을 마련하여 열람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물적 지원은 감사와 도사(都事)들도 참가하였는데, 감영(監營)에 있는 무명 40여 필, 조세 곡식 50여석을 광주향교에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수령 권수평의 향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당히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목민심서』 『예전(禮典)』의 흥학조에 권수평의 일화를 인용하여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고을 수령으로서 지방 관학인 향교에 대한 지원이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학의
풍교가 크게 진작되
고, 유학의 가르침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
다. 단정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여 향



사진 1 광주향교 전경(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 광주읍성과 향교 부근도/향교와 양사재(180도 회전)(1872, 규장각소장,奎)10497)

교의 재장(齋長)으로 삼고 사표(師表)가 되어 교생들을 통솔하게 하였다. 그들을 예의로서 대우하여 향촌민들이 예의엄치를 알도록 하였다.

(由是儒風大振, 文教益明. 簡選端方, 使爲齋長, 以作表率, 待之以禮, 養其廉恥.)

유교적 이상사회 실현을 기대

- 1560년과 1600년 중건

1560년(명종 15)에 유경심(柳景深)이 목사로 부임하여 중수한다. 고봉 기대승(1527-1572)은 1563년(명종 18)에 「대성전 중수 상량문」을 지어 기록으로 남겼다. 1500년에 성현이 지은 「광산향교 중수기」 기록은 향교 이건에 중점을 두어 수령의 치적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반면 기대승은 수령의 활동 보다는



사진 2 경주향교중신기 비(1563)
앞면 기대승 지음, 뒷면 박광욱지음

향교로 인해 풍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고봉집』에 실려 있다.

기대승은 중수된 향교에서 유학적 교화가 크게 일어나 광주지역에 유교적 이상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광주에서 예약에 근거한 정치가 이루어져 향촌민의 교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하였다.

이 무렵 광주향교 중신기(光州鄕校重新記) 비석도 세운다. 앞면은 고봉 기대승이 지었고 뒷면 음기는 회재 박광옥(1526-1593)의 글이다.

박광옥은 고을 선비들의 흥학을 위해 향교에 학전(學田)을 마련한 것을 적었다. 권수평현감(1488-1489 재임)이 논 2결 45부, 밭 1결 70부 9속, 이흥간목사(1543-1550 재임)가 논 1결 70부 9속, 유경심 목사(1560-1563 재임)가 논 3결 66부 3속, 밭 37부 5속을 마련하였다. 유경심목사는 조세가 밀려 값을 수 없는 사람의 조세를 탕감해주도록 하고 흥학을 위해 향교에 논을 내놓도록 권유하였다. 광주고을 선비들은 자원하여 논 1결 19부를 낸다.

끝에 “무릇 돌이란 그 수명이 수백년은 지탱한 것이니 세도(世道) 높낮음과 인사(人事)의 변천을 이 돌을 보고 알아 흥기할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라 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향교가 훼손된 뒤, 1600년(선조 33) 목사 이상길이 부임해 전당(殿堂)과 방실(房室)을 새로 지었다. 이에 수은 강항(1567-1618)은 「광주향교 중수상량문」지었다. 강항은 ‘호남은 인물의 부고(府庫)요 광산의 지망(地望)은 남도의 으뜸’이라 하면서 ‘광주의 교화는 다른 곳에 견줄 바 없는 수준으로 높고, 선비들은 유학 천년의 전통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지금도 유학의 도(道)를 의논하는 생원 수가 대폭 늘어날 정도라고 하면서 뛰어난 인걸들이 태어났으니, 이는 산천의 뛰어난과 아름다움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학의 효과’라고 평가한 것이다. 즉 향교에서의 유교적 교육-교화로 유교적 이상사회 실현을 기대했던 것이다.

강항은 전란으로 훼손된 향교의 사정을 ‘어찌 부자묘의 몇길이나 되는 담이 갑자기 왜적의 불두덩이 화를 당할 줄 알았으리오. 사황(絲簧)악기와 변두(鑊豆)가 잿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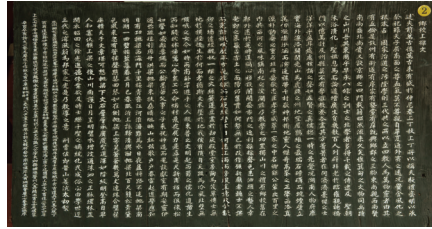


사진 3 수은 강항이 지은 광주향교상량문(명륜당내, 사진 이영범)

미 속에서 없어지고 전당과 실방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박사는 경을 펼칠 땅이 없게 되고 후생은 어디가서 덕을 살피리오’라 하였다. 자신이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만에 한국한 해에 지은 글이라 향교 중건과 인재양성은 더 화급한 일로 여겼을 것이다. 강항은 성균관의 문묘를 중수한 기문도 짓는다.

강항의 상량문은 『수은집』에 실려 있고 향교 명륜당에 현판으로 걸려 있다. 현판 끝에는 향교의 이건과 중건 등에 대해 적고, 1841년(헌종 7 신축)에 명륜당과 동서재가 불이나 조철영목사가 중건하고 강공의 문집에 있는 상량문을 새겨서 걸었다는 내용이 있다.

1804년(순조 4) 목사 김선(金銑, 1750-?)에 의해 개수된다. 김목사는 봉록을 내어줘 자금을 충당하게 하였으며, 민역(民役)의 수고로움을 피하여 추수가 끝난 10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3월 준공시키고 향음주례를 베풀어 온 고을 선비들에게 교화의 기회로 삼았다.

검재 기학경(1741-1809)이 「향교 중수기」를 지었는데 기대승의 후손으로 주자의 실천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호남의 중심으로 물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군세고 영특하고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문예를 좋아하여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광주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광주향교는 도학과 문장의 전통을 형성하고, 지역민에게 충효와 절의의 풍습을 지키게 하여 남방 학문의 정화를 얻게 하는 중심에 있다고 하였다.

1798년 ‘어제조문’과 ‘어고방’을 봉안

1798년에는 ‘어제조문(御題條問)’과 ‘어제책문(御題策問)’, 그리고 ‘어고방(御考榜)’이 광주향교에 명륜당에 보관된다. 봉안각이라 하였는데 누상고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조문’은 1797년 정조가 지은 『어정대학연의(御定大學衍義)』, 『연의보』, 『주자대전절약(朱子大全節約)』을 호남 선비들이 교정하도록 광주목사 서형수(1749-1824)를 통해 내려 보낸 것이다. 이때 84명의 호남 인재들이 참여하였고, 그에 대한 우대책의 일종으로 1798년 광주목에서 도과 시험을 치른다.

이 도과의 시험 문제가 ‘어제’이고, 합격자 명부가 ‘어고방’이다. 도과 시험에는 69명이 참여하였고 53명이 합격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2명(고정봉, 임흥원)에게는 직부전시 자격이 주어졌다. 2차 시험 없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를 바로 치르게 하는 특전이다. 임금이 직접 검토하여 “어고(御考)”라는 첨지가 함께 있다.

1841년 8월 11일 밤에 명륜당이 불이나서 피해를 입자 부분을 다시 만들어 보관한다. ‘어고방’은 고정봉가에 전하는 문서를 보고 사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필사본 끝에 서형수 목사의 봉안기(1798, 정조 22)와 조철영 목사의 봉안기(1841)가 있다. 고정봉의 ‘어고방’은 광주역사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철영(1777~1853) 목사 재임 때 명륜당과 동서 재실이 화재를 입은 뒤 중수하고 완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여서, 효제의 도리와 강학의 도를 가르쳤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인영(趙寅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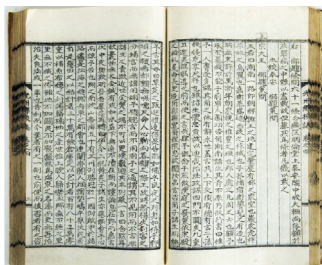


사진 4 광주향교 봉안 어제책문(御題策問)(1798, 광주목 도과에서 정조임금이 출제한 책(策)의 시제(試題)('광주향교지', 권4)

1782-1850)이 「명륜당중수기」를 지었다.

인재를 배출하는 호남 으뜸 고을 광주를 기대

1854년(철종 5) 부임한 홍재응(洪在應) 목사는 향교 중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재물을 염출하거나 노역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고을의 대소 사서인들이 모두들 기뻐하면서 목사의 공적을 칭송하였다. 기정진(1798-1879)이 「문묘 중수기」 통해 광주도 홍재응목사의 교화를 받아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호남 으뜸의 고을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1947년 12월에 광주향교에서 전남 도내의 향교 대표들이 유림대회를 열고 대성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1948년 3월에 대성대학 학생을 모집하고 광주향교 명륜당에서 입학식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52년 6월에 국립전남대학이 설립되자 대성대학은 전남대 문리과대학으로 통합되었다. 전남향교재단은 전남대학교 설립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9억여원을 헌납하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부와 목의 향교에는 90명의 교생을 두었다.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재학 기간 동안 군역이 면제되었고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광주향교에는 향교 운영이나 교육 강화 관련 다양한 문서자료가 있다. 유안(儒案) 11책은 1619년 고용후의 서문이 있는 광주향좌목 등 향안 2책과 광주교적 등 유적안(儒籍案) 9책이다. 「기미광주향좌목(己未光州鄉座目)」의 서문(1619)에서 고용후(高用厚)는 임진왜란 이전의 향안(鄉案)은 병화로 불타 없어진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못하여 애석히 여기던 중에 1619년 4월에 향유들이 양림(陽林)에 모여 신구 좌목을 선사(繕寫)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전란을 겪은 뒤 전란 각지의 향안들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향론의 분열로 파치되는 상태였음에도 광

주만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남원의 『용성지(龍城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광주 출신의 사마시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명부 2책이 있는데, 『광주사마안』은 1396년(태조 5) 진사 김부(金弔)부터 시작하여 병오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수정도유사 박이현(朴彝鉉)의 활동시기로 보아 1846년에 해당한다. 493명의 성명과 본관을 기록하였다. 『광주사마방』은 등방년(登榜年), 성명, 본관, 부의 직명, 안향[雁行, 형제]인명까지 기록하였다.

광주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내삼문, 외삼문, 양사재, 문회재, 충효교육관, 비각, 홍살문, 충효문, 하마비, 유림회관이 있다. 대성전은 3칸 맞배지붕 집으로 공부자와 오성, 송조이현, 동국십팔현을 배향하고 있다. 명륜당은 6칸이 맞배지중집으로 가구 구성은 1고주 5량가와 무고주 5량가가 병행된 구조이다. 역대 중수기 상량문은 편액이 걸려 있다.



사진 5 광주 향교 성책 고문서(사진 한국학호남진흥원)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광주향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태창건축사사무소, 2011.
- 광주향교, 『광주향교지』(상·하), 광주향교지편찬위원회, 2021.
- 광주향교문헌지편찬위원회, 『광주향교문헌지』, 도서출판사람들, 2012.
-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향토문화총서 제28집-, 1987.
- 한예원, 『광주(光州)향교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광주읍성”의 교육과 교화』, 한국시가문화연구34, 2014.

벽진서원, 고다산성, 가래치기, 향토문화유산

벽진서원(碧津書院)이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2021년 1월 25일 지정되었다. 문신 학자이자 임진왜란의 공신 회재 박광옥선생을 배향한 서원이다. 원래 조선시대 벽진사로 건립되어 박광옥을 배향했는데, 김덕령을 합향한 뒤 의열사로 사액을 받았다. 훼손된 뒤 윤리영당, 윤리사로 복설했다가 벽진서원이라 하였다. 광주의 역사 인물로서 의미가 있고 사액 사우로서 역사성도 있지만 훼손된 뒤 근래 복설되었지만 그 역사성이 이어지고 있어 지정한 것이다. 서구청장,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가 된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 지정 향토문화유산,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정문화재는 흔히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이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광역시장에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정의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문화재 지정을 한 권한이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조례로 입법하여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문화재라고 하여 지정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위임되는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인 셈이다.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라 하여 직권조례라 한다.

자치조례는 지방자치 정신에 더 근접한 것 같지만, “지정문화재”이기는 한데 “문화재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

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도 이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지방”에 있다기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사회 사정이 더 문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지만, 이 구석 저 구석 살펴보면 한낱 구호일 뿐인 경우가 많다. 한때 시·군·구 지정문화재 제도를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한다는 검토를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광주 벽진서원은 1602년(선조 35) 벽진사로 창건하여 박광옥(1526-1593)을 배향하였다. 벽진서원으로로도 불렸다. 1678년(숙종 4) 김덕령(1567-1596)을 합향하였고 1681년(숙종 7) 의열사(義烈祠)로 사액되었다. 1694년(숙종 20) 오두인(1624-1689), 1728년(영조 4) 김덕홍(1558-1592)과 김덕보(1571-1627)를 배향하였다.

서원훼철령에 따라 헐렸다가 1927년에 박광옥을 향사하면서 영정을 봉안해 운리영당(雲裏影堂)이라 하였다. 도시개발로 인해 1999년 이 건 복설하여 윤리사라 하였다. 2018년 벽진서원이라 하고 신실은 의열사라 하였다.



사진 1 광주 벽진서원(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

벽진서원에 있는 사제문(賜祭文) 현판은 1681년(숙종 7) 4월 24일 임금이 하사한 제문으로 강당인 숭본당(崇本堂)에 걸려 있다. 조선시대 서원과 사우는 국가 공인에 해당한다 할 사액을 받으면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각종 부역을 면제하거나 줄여 준다. 향사때는 제관을 파견하고 제문과 제수를 하사한다. 벽진서원은 1681년 의열사로 사액을 받는데 이때 임금이 하사한 제문이 현판으로 있는 것이다.

제관은 예조좌랑 이정린(1625-1682)이고 서파 오도일(1645-1703)이 지었는데 『서파집(西坡集)』(권19)에 실려 있다. 연호와 간지 연월일의 세차를 앞에 썼다. 국왕이 파견한 제관인 예조좌랑 이정린이 박광옥과 김덕령의 영위에 제문을 올리는 형식이다.



사진 2 벽진서원 소장 의열사 사제문 현판
(1681년, 숙종 7 신유 4월 24일, 제관 예조좌랑 李廷麟, 제문 吳道一 撰)

앞부분에 “부지런한 경을 생각하니 남쪽지방 수재일세 문학을 연마하여 이른 명성 드날렸네....늙음에 말고삐를 잡지 않고 집에 있는 군량을 보내었네 한을 안고 죽으니 지사가 눈물을 떨구네(臺臺惟卿 南國之秀 績文種學 譽聞夙驚 ... 老不執轡 在家給饋 齎恨而歿 志士隕淚)라 하여 박광옥의 학문과 의병활동을 찬미하였다.

뒷부분에서는 “충의를 고무하니 용맹한 군사 구름처럼 모이네 높은 산보다 크게 무찌르니 적의 추장 간담이 서늘하네. ... 참언은 매우 달

콧하고 간악한 무리 침체되네... 현종 때 원통함 밝혀 선혁을 애증하였네(鼓以忠義 勇士雲集 大膊于嶠 賦酋膽懾... 盜言孔甘 賊弩潛中... 顯廟昭冤 哀贈輝燦)라 하여 김덕령의 의병활동과 참언에 의한 피해, 그리고 신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어서 사액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끝에 상지 정미...계판(上之丁未...揭板)이라 하였는데 1787년(정조 11) 정미년으로 보인다. 1785년(정조 9) 김덕령에게 충장의 시호를 내리는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 현판은 사제(賜祭), 국왕(國王), 현묘(顯廟, 현종) 등 임금을 상징하는 용어는 대두(擡頭)를 하여 줄을 바꾸고 한 글자씩 올려 써 당시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 제문 지은이의 문집에서도 확인되는 등 역사적 의의가 있다. 1604년에 명명한 벽진서원은 서원 이름으로, 사액 사우 명칭인 의열사는 신실 이름으로 그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0년 월산사와 자산서원 2건을 지정했다.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사람을 이끌었던 성리학자 곤재 정개청(1529-1590)을 모시기 위해 1616년(광해군 8) 건립하였다. 1657년(효종 8) 서인의 상소로 훼손된 이후 1678년(숙종 4) 사액을 받기도 하지만 다섯 차례의 철폐와 복설을 반복했다. 현재의 서원은 1957년에 복설된 뒤 1988년 중건하였다. 정개청은 나주 대곡동에서 태어나 박순 등과 종유하면서 학문을 강구하였다. 만년에 함평 엄다(당시 무안)에 운암정사를 짓고 강학을 하여 제자가 400여명에 이르렀다. 저서로 『우득록』이 전하는데, 우득록 목판(48매)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6호이다.

해남군은 2020년 4건을 지정했다. 현산 고다산성, 화산 호미재, 광보사 지장보살본원경 등 향토유형유산과 해남 오구궁 향토문화유산이다.

현산 고다산성은 현산면 읍호리 성매산에 위치하여 ‘성매산성’으로

도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보인다. 테피식의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450미터이다. 해남반도의 해양방어를 위한 관방시설로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



사진 3 해남 고다산성

벽이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고, 주민의 보호의지도 뚜렷하다.

영광군은 2020년 8건을 지정했다. 2021년에는 3건을 지정했다. 무령리 산신각은 산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1897년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 부지 부근에 있다가 무령리 주민들의 발의로 관람산으로 옮겨졌다. 영광지역 유일한 산신각이며, 산신제가 계승되고 있어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수은공 강항비(睡隱公 姜沆碑)는 1820년 수은 강항(1567-1618) 선생 무덤 앞에 세운 비석으로 당대 유명한 문장가인 성담 송환기(1728-1807)가 비문을 짓고, 명필가인 기원 유한지(1760-1834)가 글씨를 썼다. 강항의 출생, 선조, 학문 수학관직 활동,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기 활동, 일본에서의 생활 등이 기록돼 있다. 수은 강항의 생애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금석문이다.



사진 4 수은공 강항비

강진군은 2020년 15건을 지정하였다. 모두 70건으로 전남 도내에서는 가장 많다.

강진 제주고씨 충효 정려와 비는 고수정(1408-1483)과 고수검(1415-1487) 형제와 고수검 증손 고명달(1587-1619) 삼효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고수정의 아들 고몽룡, 고수검의 손자 고태항, 고수검의 증손 고흥달, 고수정의 종증손 고무전 사충이다. 삼효사충비는 최익현(1833-1906)과 기우만(1846-1916)이 비문을 지어 1900년에 세웠다. 고수정의 효행은 ‘수정려묘(守精廬墓)’, 고명달의 효행은 ‘명달효감(命達孝感)’이라 하여 1617년(광해군 9)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올라 있다.

도암 청룡등 해남윤씨 사형제 종송명(種松銘) 표석은 윤강(尹綱), 윤약(尹約), 윤륜(尹綸), 윤신(尹紳) 사형제가 1584년(선조 17)에 새긴 것이다. “이곳은 청룡등으로 소나무와 나무를 많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깎거나 베지 못하도록 하여, 후손들이 이 착한 일을 이어가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라[爲此靑龍種松種木 他人見此勿剪勿伐 後昆見此善繼勿失].”는 내용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금석문이고 향촌 활동을 알 수 있고, 이후 사형제는 정유재란에 의병으로 절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점 등에서 가치가 있다.

화방사 사적비는 1917년 허원응 계정(許圓應 戒正, 1856-1927)이 지은 근대기 사찰 사적비로서 건립 연대,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비문을 새긴 사람, 주지, 불사 참여자 등과 화방사의 중개 수 내력에 대한 연혁을 알 수 있다.

강진읍교회 종탑은 1914년 1월 강진읍교회에 설치되었던 종이다. 1919년 4월 4일 정오에 강진 4·4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일명 ‘독립만세종’으로 항일독립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향토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군동 백금포 석빙고는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수산물을 보관하여 유

통시키기 위해 축조한 근대기의 냉장보관 창고 시설이다. 수산자원의 보관 유통에 관련된 중요한 건조물로서 백금포항수축기념비와 함께 향토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가래치기는 병영 중고리 일대에서 벼 수확이 다 끝나고 수리를 위해 물을 뺀 저수지에서 가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가둬 잡는 전통어로 방식을 말한다. 가래는 대나무를 삶은 뒤 줄로 엮어 만든 길이 대략 50cm 정도 원뿔형의 통발인 바구니이다. 농민들이 추수 후에 물고기를 잡아 나누어 먹으며 화합을 다지는 마을잔치로서 향토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나주시는 2021년에 3건을 지정하였다. 소요정(逍遙亭)은 1529년(중종 24)에 이종인(李宗仁, 1458-1533)이 만년 소요 은거처이자 학문 교류처로 건립한 정자이다.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이며 고봉 기대승, 백호 임제, 옥봉 백광훈 등 당대 학인들의 교류 공간이었다. 건물도 조선후기에 중수한 이래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 구조도 견실하다.

나주 구진포터널은 일제강점기 1913년 호남선 철도 부설과 동시에 건설되었다가 2001년 폐선구간에 포함되었다. 호남선 건설에 관한 문헌에 터널 건설 정보가 명시되어 있고, 터널 내의 측벽부까지 조적조



사진 5 강진 가래치기

로 정밀하게 시공된 보기 드문 사례로 근대유산 가치가 충분하다.

나주는 58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특히 유형문화재 고문서·전적류와 민속문화재 당산제·당산일원, 무형문화재 향토민요를 많이 지정하고 있다. 고문서는 이로당 소장 일괄문서, 금안동 동계 일괄문서, 초동 동계 일괄문서, 창계가 소장 일괄문서, 함평이씨 참판공문중 소장 고문서, 금강계 중수계안과 관련문서, 호남절의록과 금성삼강록 등이다. 당산제는 동사리 당산제와 당산일원, 제창 당산제와 당산일원, 중포리 당산제와 당산일원 등이다. 향토민요는 다시 들노래, 동강 봉추 들노래, 봉황 내촌 들노래, 노안 학산 들노래 등이다.

전남과 광주 의 시·군·구 지정 향토문화유산 사례를 보면 서원이나 사우, 고문서와 전적, 당산제와 당산, 충효열유적, 산신각, 근대 사찰 사적비, 교회 종탑, 근대기 석빙고, 민주화운동가 생가, 철도터널, 가래치기 등 다양하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3건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전남도지정문화재가 되었다. 강진 고성사 청동여래좌상은 보물, 강진 백운동 계곡은 명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여택정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했다가 지정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성, 학술성은 있으나 원형을 비켜서 있거나 시기가 늦은 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에도 시·군·구 지정문화재가 포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황호균·김희태, 『광주학 문헌과 현장 이야기』, 광주향토문화자료총서17-,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20.

김희태, 『기록으로 본 선비의 삶-회재 박광옥선생과 벽진서원의 문화유산-』, 『회재로 따라 인문학 여행』, 교육문화네트워크 동행, 2021.08.27.

『향토문화유산 조사자료』,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법성진에서 본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올린 치계문, 1774년

영광 법성진 숲쟁이 - 명승

법성포단오제 - 국가무형문화재

영광 법성진성 - 전라남도 기념물

영광 법성 입암리 매향비 - 전라남도 기념물

영광 법성리 일본식여관 -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법성. 다섯 종류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일부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 문화경관 명승, 무형유산 단오제, 국방유적, 석각유산, 근대유산 등.

법성창과 법성진. 고려시대의 조창과 조선시대의 수군진. 그 오랜 역사속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하고 지정문화재가 된 것이다. 법성진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승격지정하고자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 “법성진성”으로 한정하여 성곽유적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법성진”으로 공간과 시설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정문화재와 다르지만 오히려 더 알려진 문화자원이 있다. “영광 굴비”, 아니 “법성포 굴비”라 해야 하나. 석수어(石首魚)로 표기되는. 지정을 한다면 어느 관점이 중요할까.

“굴비덕장과 굴비만들기”. 어로 전통지식으로 보면 무형문화재, 굴비덕장의 여러 시설, 도구, 재료, 기록자료 등을 함께 본다면 어로민속생활사 유산으로 민속문화재, 조선초 『태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 등에 나오니 그 오랜 역사의 현장 유산으로 치자면 기념물이

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으리라 본다.

또 하나 아쉬운게 있다.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실물을 볼 수 없는 조선후기의 기록자료이다. 고가의 벽지로 발라진 문서인데 1774년(영조 50)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올린 치계문 원본 문서이다.

2016년 4월. 법성진 현지 조사를 하던 전통건축 연구자(성대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 무너져 가는 법성진 내 고가인데 건물 상량 기록 [겉상량]이 있어 헤아려 보니 1829년(道光 玖年)인데 일부 부재만 걸쳐져 있어 하늘이 훤히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벽에 발라진 벽지에 한문이 많이 쓰여 있어 무슨 문서 같다는 것이었다. 목조건축으로도 오래된 연대이지만 “벽짜”에 발라진 문서라는 말이 더 와 닿았다.

“과로”에 “가고(家故)”의 후유증으로 병원 문턱을 나서던 터이지만, 호기심이 또 발동했다. 우선 사진을 받아 보았다. 어느 한 부분에서 1774년(乾隆 三十九年) 연기가 확인된다. 이런 문서로 도배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당시 조사는 법성진성 현황조사였는데 발견된 고가는 법성면 진내리 336번지 가옥이었다. 오래된 건물이 있다 해 혹 관아 건물이지 않을까 해 찾아갔던 것이다. 집은 폐가가 된지 오래였는데 상량과 벽에 도배된 일부 문서를 확인했다는 경위를 듣고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을 받아 본지 열흘 남짓지나 말을 듣지 않은 몸을 달래가며 현장으로 나섰다.

말 그대로 폐가였다. 지붕은 다 없어지고 도리만 걸쳐져 있어 바로 하늘이 훤히 보였다. 키를 넘는 온갖 잡초에 “귀신” 나올 것 같은 주변 환경이었다. 벽에 붙은 문서를 통째 잡아당겨 벗겨 보았다. 땀과 먼지는 뒤

범벅이고 벽지와 함께 벽체의 흙벽 부스러기가 붙어서 떨어진다. 부피가 너무 커서 승용차에는 실을 수가 없었다. 공부길의 동지인 도서관화 전문가(김경옥교수)도 함께 하였다. 고문서팀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왔었다. 사랑채처럼 보이는 처마 밑에 우선 두고 시간을 봐가면서 어디로 옮기든지 조치하면 될 것 같았다. 차일 피일 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결국에는 몇 달간 출근마저 못하고 말았다. 그런 사이 그 문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

법성 진내리 고가의 벽지 문서는 조선후기 관문서였다. 1774년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올린 치계문이었다. 이 고가의 상량기록[결상량]은 “道光玖年 己丑 六月二十八日 辰時立柱 同日 申時上樑”이다. 1829년(순조 29)년에 해당한다. 목조 건조물로서 오래되었고 4칸 규모인 점도 여느 민가와는 비교되었다.

문서는 크게 성격과 연대, 작성 주체가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보인다. 하나는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보고한 한인(漢人) 표도민(漂到民) 관련 기록이다. 영광군수가 주체로 보인다. 법성진 옛터에서 확인되는 것은, 당시 표도민을 법성진 공해에 머물게 하고 문정(問情)을 했기 때 문이다.



사진 1 영광군수가 비변사에 올린 표도민 기록 문서
(1774.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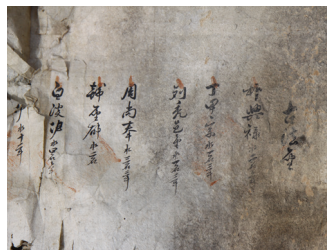


사진 2 물량을 기록한 문기

다른 하나는 곡식 출납부로 보인다. <古法聖>이라 표기되어 있고 <朴興祿 水 二石二斗> 등 인명과 물량이 나열된 것으로 아마도 법성포진 첨사가 주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표도민 기록은 『비변사등록』 등 관찬 기록에서 많이 확인되지만, 현재의 원본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마도 첫 사례일 듯싶다. 이 고가 문서는 “乾隆 三十九年 十二月 初(六)日”의 연기가 있어 1774년(영조 50) 12월 6일에 영광 구수미에 표류한 한인(漢人) 관련해 보고된 치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즉, 1774년(영조 50)에 영광 법성포로 한인 25명이 표착한 사실이 『비변사등록』에서 확인된다.

우선, 진내리 고가 벽체에 있는 고문서를 옮겨 보자.(사진 성대철, 정리 김희태, 김경옥, 고정서)

○○○○

京問官備局○○○

全羅道靈光郡漂漢人○○○

本月二十九日四更量馳到靈光郡○○○

三十里地法聖鎮公廨三十日卽○○○○○○○○

仍爲詳細問情則果是○戶行○○○駕○○

是乎等以同漂漢人姓名年紀居住○帶錢布○

于○以備考覽爲乎跡其隨身雜物件記段○

同故不爲○呈而問情酬酢之際○○○○

乎則渠等○○容改坐曰俺等漂沒○

命已是貴國之恩德況賜之衣而賜之○○

○○○○.....

○離發而○人○○○○儉次當○○○○

爲臥乎事乾隆 三十九年
十二月初(六)○
爲馳報事九水尾漂到彼
人等○○
纔已膽報事



그림 1 조선후기 법성진과 구미(구수미) 부근도(영광군지도, 1872, 奎10459)

그 내용은 전라도 영광
구수미(九水尾)에 표도한
한인(漢人)에 관한 것이
다. 구수미는 법성포 건

너편으로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구미마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구수
면(九水面)에 속했다. ‘九水尾’ 또는 ‘九岫尾’라 표기했고 마을 앞 포구
를 구수포(九水浦)라 했다. 표류하여 이곳에 다다른 것이다.

본월(本月, 10월) 29일 사경(四更, 새벽 1시-3시)에 한인이 표도하여
영광군에서 30리 거리의 법성진 공해에 머무르게 하고 상세하게 물어
서 신원을 파악했다. 성명, 나이, 거주지, 전포, 휴대물품 등을 기록하고
문정할 때는 편안하게 대했으며 그들은 표류에서 생명을 구해주고 옷을
내려 준데 대해 은혜에 감사해 했다. 12월 6일에 치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와 『비변사등록』을 비교하여 기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11월 19일에 『비변사등록』에서 처음 보인다. 영광 구수미 표도 한인
관련 첫 공식기록인 셈이다. 전라감사 서호수의 장계에 따라 비변사에
서 육로로 돌려보내고 자문을 지어 보낼 것을 보고한다. [『비변사등록』
영조 50년(1774) 11월 19일(음)] 그런데 진내리 고가 고문서를 통하여
10월 29일 새벽 25명이 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월 30일에는 법

성진 공해에 머물게 하고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12월 6일에는 영광군에서 비변사에 치계한다.[고가 고문서]

12월 8일에는 영의정 신회가 영광 표류인들이 육로로 서울에 온다 하니 남별궁에 수용하여 문정하도록 논의한다. 그리고 이날 전라병사 이한태(李漢泰)가 영광 표도인 관련해 보고를 소홀히 했다하여 파직한다.[『비변사등록』 영조 50년(1774) 12월 8일(음)] 12월 18일에는 비변사 낭청과 역관이 문정한 내용을 정서(正書)하여 올리고 추운 날씨에 멀리 왔으니 하루 이틀 쉬게 한 뒤에 즉시 떠나게 하자고 보고를 한다.[『비변사등록』 영조 50년(1774) 12월 18일(음)] 이후 송환된다.

이상, 법성 진내리 고가 고문서와 『비변사등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1774년 10월 29일 영광 구수미에 표류하여 법성진 공해에 머물면서 살살이 문정(問情)을 하였다. 표류인들이 입을 옷가지는 우수영의 휴번목(休番木)으로 정하게 지어 주고 아침 저녁의 식사 제공도 각별히 신칙하여 조정에서 후미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한다. 영광군수, 전라병사, 전라관찰사는 비변사에 치계한다.
2. 법성진에서 문정한 역관이 영솔하여 육로로 서울로 올라가는데 12월 7일께 도착하고, 12월 18일까지 다시 문정을 하고 1~2일 쉬게 한뒤 육로로 돌려 보내진다.
3. 표류한 한인들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주부(登州府) 복산현(福山縣)의 상인(商人)들이었다.
4. 표도인들은 모두 25명이고 최연소 21세, 최고령 59세이고 문자를 아는 자는 2인, 수수(水手, 舵工)는 1인이고 나머지는 매매인(賣買人)이었다.

5. 봉천부로 쌀을 사러 가는 길이었고 돈 1천 2백 70조(吊) 영(零)과 백포(白布) 26필 흑포(黑布) 4백 80필을 소지하였다. 1천 전이 1조이고 1백 전은 1백(白)이다.
6. 10월 23일 집을 떠나 28일 배에 올랐으며 영해부(寧海府) 소관 철산(鐵山)앞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10여일 표류하다 11월 9일 우리나라 역내에 정박하였다.
7. 법성포에 머물면서 역관 정사현(鄭思玄)이 문정한 내용과 비변사에서 문정한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았고, 정사현은 서울까지 영술하였다.
8. 표류 사건이 발생하면 병사나 관찰사 장계를 올리는데, 전라병사 이한태는 영광 표류인 장계와 비국에 보낸 보장(報狀)에서 물건의 성채를 올려보내다 하고서 올려보내지 않아 막중한 변보(邊報)를 소홀히 해 파직 당한다.
9. 서울에서는 남별궁에 수용하고 금군(禁軍) 1인과 좌·우포도청의 군관 각 1인씩을 따로 차정하여 위군(衛軍)과 포군(捕軍)을 거느리고 각별히 수비하게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의복을 지어 주는 일 등도 각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본사의 낭청 1인과 일을 잘 아는 역관 몇 사람도 차정하여 살살이 문정한다.
10. 육로로 가고자 하여 육로로 돌려보내며 각도에 분부해 차원(差員)을 서울로 올려보내게 한다. 서울에서 의주부(義州府)로 보내서 봉황성



사진 3 영광 법성진 고가 전경(2016.4.12. 사진 성대철)

(鳳凰城)으로 보내되 급식과 쇠마(刷馬) 징발, 잡인 엄금, 물건 쇠마 운반, 차원 영솔로 실종 방지, 한학(漢學) 역관 한 사람 배치, 자문도 승문에 시켜 미리 짓게 하여 재자관(齎咨官)의 행차를 기다리게 하는 등의 절차를 따른다.

영광 법성 진내리 고가에서 확인된 고문서는 일부 내용이지만, 표도민과 막중한 변사(邊事)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알 수 있는 현지의 원본 자료로서 처음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진 4 고가 상량기록(길상량)(道光玖年 [1829.] 己丑 六月二十八日…)

몇 달 뒤 다시 현장으로 나섰다. 발견된 뒤 얼마지 않아 보관했던 건 물마져 무너지고 비에 씻겨버려 흔적마저 찾기 어려웠다. 그때 어떻게 든 이동하여 보관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제 사진 한 장 남았다. “가고”의 트라우마로 출근도 못했는데 현장 유산에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는가 할 수도 있지만 “변명”이다. 문화유산은 그때 그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성 고가 벽지로 발라진 1774년 변사의 치계문 원본. 그 중요성 만큼이나 상실감도 크다. 그 상실감이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참회의 글로 대신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비변사등록』

국립민속박물관, 『영광군 법성포』,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우수영편』, 2011.

영광군·(재)전남문화재연구원, 『영광 법성진 숲쟁이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II』-영광 법성진성 현황조사 및 기본 정비계획-, 2016.

희경루,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다[咸喜相慶]

1571년 희경루, 전라도 관리 포폄 정사

“28일 오시 초에 4사(使, 병사·좌수사·우수사·관찰사)가 희경루(喜景樓)에 모였다. 내가 먼저 오르고 병사(兵使)가 다음에 올라 함께 북벽에 앉았다. 좌수사(左水使)와 우수사가 다음에 올라 함께 동벽에 앉으니 풍악이 울리고 번갈아 술잔을 들었다. 그전에 두 수사가 첨사와 만호의 포폄을 논의했는데, 우수사는 목포(木浦)를 토(土, 5등)로 삼고 어란진(於蘭鎭)을 수(水, 3등)로 삼았다. 나는 임치진(臨淄鎭)이 군졸을 금홍히 여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또한 토(土)로 삼으려 했는데 좌수사는 여도(呂島)를 토로 삼았다. 두 수사가 물러간 뒤에 병사와 마주하여 수령들의 포폄을 논의했는데, 순창을 내가 토(土)로 삼으려 하자 도사(都事)와 병사는 수(水)가 합당하다고 했다.”

장소는 광주목 희경루(喜慶樓). 희경루(喜景樓)로 표기하고 있다. 1571년(선조 4, 신미) 7월 28일. 전라도의 관찰사, 병사, 좌수사, 우수사가 모여 수령과 첨사, 만호에 대한 포폄을 논의하는 정사(政事).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 기록이다. 유희춘은 1571년 2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라도관찰사를 지내면서 네번의 순력을 하는데 세 번째의 순력 길이다.

포폄(褒貶)은 관료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인사행정제도. ‘포(褒)’는 승진과 포상, ‘폄(貶)’은 강등과 파직을 뜻한다. 포폄은 전최(殿最)라고도 했다. ‘전(殿)’은 공이 낮음을, ‘최(最)’는 공적이 높음을 말한다. 포폄의 시행과정은 평가와 동의, 보고의 3단계였고 보고 이후 해당 관리에게 성적을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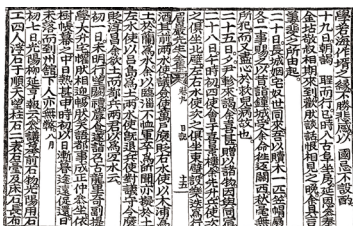


그림 1 『미암선생집』 일기 1571년 7월 28일조(한국고전종합DB) 전라관찰사, 병사, 죄수사, 우수사가 회경루에 모여 전라도 외관을 포폄하는 기록이다. 필사본 『미암일기』(보물)에는 7월 29일조에 동헌에서 포폄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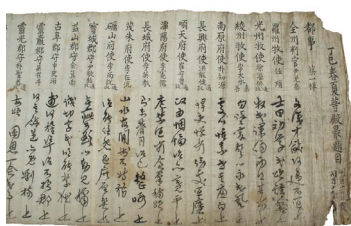


그림 2 전라도 관찰사의 포폄 문서(전라도의 수령과 참사, 만호는 매년 6월과 7월에 관찰사, 병사, 수사가 포폄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문서를 공개한다. 사진은 옥과현감 위백규의 1797년(병진) 6월 포폄문서인 전치제목이다). 소장 장흥 방촌 존재고택, 기탁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관리들은 각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 한 급씩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를 사만 승자(仕滿陞資)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 했다. 경관과 외관에 대한 포폄은 매년 6월과 12월에 한다. 경관은 해당 관청의 당사관이, 외관은 관찰사와 병사와 수사가 상의해 포폄을 한다. 다만, 제주와 대정, 정의 세 고을은 제주목사가 등제를 매겨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이어진 7월 29일 기록을 보자. 이때는 동헌에서 정무를 본다. 대청에서 식사를 하고 병사와 수사는 작별을 한다. 도사와 함께 수령들의 포폄을 최종 결정한다.

“나는 도사와 더불어 포폄을 정했는데, 영암군수 문익성(文益成), 순창군수 우세신(禹世臣), 용안현감 김호(金鎬)를 하등으로 삼았다. 장성 수령 최척(崔迪), 화순 수령 홍창(洪昌), 동복 수령 김눌(金訥), 흥덕수령 송주(宋宙), 태인 수령 현구(玄球)를 중등으로 삼았다.”

정리하면, 신미년 춘하 전치는 전라도 관찰사의 순력에 맞추어 광주

목에서 병사와 좌·우수사가 모여 7월 28일에 실시한다. 이때 수령은 전라도 57관 가운데 54관. 그리고 전라우수사가 관할하는 임치진첨사와 목포만호 등 5인, 가리포진첨사와 어란포만호 등 6명, 전라 좌수사가 관할하는 방답진첨사와 녹도만호 등 4명이다. 외관 54명, 무관 18명, 도사(都事)를 포함하면 72명이다. 전라도 도사나 전주 판관, 찰방도 대상에 든다.

첨사와 만호 등 무관에 대한 포폄의 평가자는 병사와 수사, 관찰사는 동의자이다. 수령에 대한 평가는 관찰사가 평가자, 병사가 동의자다. 위 두 기록에서 언급된 몇 곳의 수령과 무관의 평가는 관찰사와 병사의 의견이 달랐다. 순창군수는 병사가 높은 점수를 주려 했으나, 낮은 점수를 주장한 관찰사의 의견에 따라 하등급. 평가자인 관찰사의 의견이 반영된다. 첨사와 만호의 평가는 동의자인 관찰사의 의견보다는 평가자인 좌·우수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1567년 기년작 계회도, 희경루 방회도

저 포폄 정사 바로 앞선 기록으로 1567년(명종 22)의 희경루 방회도(喜慶樓榜會圖)가 있다. 1546년(명종 1)의 증광시 문과 동기들이 급제 21년만인 1567년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를 갖고 제작한 것이다. 기년작(紀年作) 계회도로 가치가 평가되어 2015년 보물이 되었다.

참여자는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 승문원 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전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다섯 사람. 최응룡은 장원, 임복은 을과 6등, 강섬은 병과 2등을 하였다. 유극공과 남효용은 문과 방목에는 보이지 않는다. 발문에 “동년(同年)”이라 한 것을

보면 무과 급제자로 보인다. 주관자는 전라도관찰사 강섬이다. 동방으로 영광군수 윤홍중(尹弘中, 1518-1572)과 광양현감 육대춘(陸大春)이 지방관으로 있었다.

방회도 화면은 전서체의 표제, 계회장면, 좌목(명단), 발문으로 구성되었다. 좌목에는 품계와 관직, 성함, 자, 본관, 부친 관직과 함자를 기록하였다. 최응룡이 지은 발문에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이 근무지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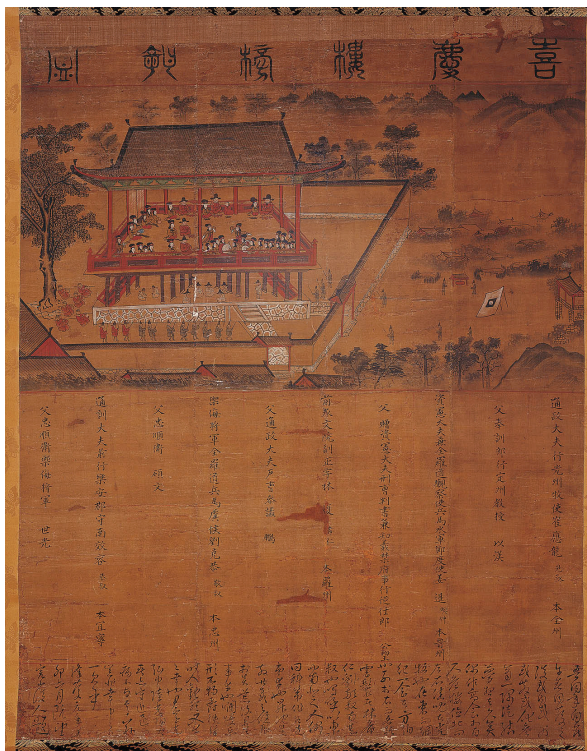


그림 3 회경루 방회도(喜慶樓榜會圖) (보물 제1879호,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5,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43쪽) - 민간의 제영루정과는 달리 관영 누각으로 정사가 펼쳐지는 곳이며 제영루도 사객과 관인들이 지은 왕화(王化)와 관련되는 교화류가 많다. 원래 주인공 5명에게 각기 주어졌을 것이나 1본만 전하고 있다.

라 흩어진 뒤 못 만난지 20여년이 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의 그 리움과 만남에 대한 감회를 적어, 함께 첫 발을 내디뎠던 동료간의 친 밀한 공감대가 엿보인다. 다섯 사람의 앓는 위치도 적었다.

축대를 쌓은 대위에 1층은 기둥을 세우고, 2층에 누를 올린 희경루 안에는 모임의 주인공들과 여러 기녀들이 자리한 가운데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다. 담장, 민가, 전정과 활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래층에는 하인, 피리 부는 악공, 축대 아래쪽에는 나장과 같은 군졸이 서있다.

포편과 같은 정사 외에도 문헌에서 희경루 제영이 20여편이 확인된다. 교화류와 인정류로 나눌 수 있다. 교화류는 사객(使客)이나 관인들이 왕화(王化)를 수창한 제영. 이선제, 이석형, 성임, 허종, 유순, 김종직, 소세양, 송인수 등 8편. 이들은 또 명의 사신과 수창하기도 한다. 민간의 누정 제영과는 다른 형상화이다. 인정류는 지역출신이나 친분있는 이들이 애향과 교유를 읊는다. 송순, 임억령, 임제, 백광훈 등.

전라도의 요충[一道之衝] 광주, “함희상경(咸喜相慶)”

희경루는 1451년(문종 원년)에 지은 관영 누각이다. 광주목은 1430년(세종 12)에 무진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복호되었는데, 마침 짓고 있던 누각이 완공되자 희경루로 명명하였다. 강등과 복호, 희경루 명명은 긴 사연이 있다.

1430년에 토성품관이 광주 목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읍호가 강등된다. 이 강등은 1420년(세종 2)에 제정된 ‘부민고소금지법’의 시행세칙으로 1429년(세종 11)에 수교가 확정되는데 광주 강등이 첫

사례이다.

읍호 강등은 광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서 처음으로 겪은 강등 조치였고 계수관마저 장흥도호부에 내주고 말아서이다. 계수관은 중앙과 지방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행정기구로서 도의 지시를 관할하는 군현에 전달하면서 군현을 통할하기도 하였다. 광주 읍호강등은 수교 반포 이래 처음 적용되어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광주가 사례로 언급되었다. 더군다나 “사건의 발단이 애매하여 위로는 산천의 귀신과 아래로는 향촌의 부로와 아이들까지 모두 억울함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도 능히 그 일을 호소하지 못한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기록처럼 읍호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451년(문종 원년) 여름에 순성군 이개(李誾, ?-1462), 전 중추 이맹진(李孟珍, 1374-1456), 전흥(田興, 1376-1457), 우참찬 안송선(安崇善, 1392-1452), 이조판서 권맹손(權孟孫, 1390-1456), 인순부윤 김청(金聽, ?-1462), 전 동지중추원사 유맹문(柳孟聞), 예문 제학 이선제(李先齊, 1390-1453) 등이 논의하였다. 필문 이선제가 중심이 된다. 이개와 좌의정 황보인 등은 “토지의 광대함과 인물의 번창함이 서남 여러 고을의 으뜸으로서 실로 전라도의 한 도회소(都會所)”로 “구호(舊號)로 회복하도록 허가하여 경신(更新)할 길을 열어 주소서.”라 상언한다. 유향 품관과 인리(人吏) 등도 또한 상언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6월 7일에 광주목으로 복호된다. 양력으로 7월 5일.

이때에 마침 짓고 있던 누각이 낙성되니 고을의 어른들이 태수(안철석)에게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함희상경(咸喜相慶)”의 뜻을 담아 “희경(喜慶)”으로 누의 이름을 지어 이 기쁨을 기념하고자 청하였다. 이에 따라 “희경루(喜慶樓)”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필문 이선제는 「희경루원운」에서 “노소가 혼연히 경사스러움을 기뻐

하니, 끝없는 이 즐거움 해마다 이어지기를[老少欣然然喜慶 願令此樂樂年年]”이라 읊었다. 신숙주(1417-1475)의 ‘희경루기’를 통해 경관을 읽을 수 있다.

“이에 재목을 모아 집을 짓되 옛 건물보다 더 크게 하여 몇 달이 채 안 되어 준공을 하였다. 건물의 칸 수는 남북이 다섯 칸이고 동서가 네 칸인데 넓고 밝으며 장엄하여 동방에서 으뜸가는 누가 되었다. 동쪽으로는 큰 길에 임하고 서쪽으로는 대숲이 내려다 보이는데 누의 북쪽에 못을 파 연을 심고 따로 동쪽에 활터를 만들어 관덕(觀德)의 장소로 만들었다.”

1571년 7월 28일 포폄 정사는 희경루에서, 7월 29일의 평가는 동헌에서 이루어짐을 보았다. 이렇듯 희경루는 광주목의 관영 누각으로서 정무를 보는 관아 건물이다. 일반적인 민간 누정의 제영풍류와는 구분되는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영 건조물의 외형으로서만



사진 1 희경루 조감도. 광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광주공원 한켠에 짓기 시작했다. 건조물이 외형 “중건”을 복원을 넘어 “정무”와 “의례” 등을 “복원”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광주광역시·삼진건축사사무소)

아니라, 그 공간과 관련된 역사 문화 관련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희경루 “복원”과 “중건” 논의는 오래이다. 원래 자리는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곁이다. 1914년 무렵까지 있었다. 도시화 된 원위치와 가까운 광주공원 한켠 시내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새로 짓기 시작하였다.

외형과 공간으로 보자면 “중건”이겠지만, 그 공간에서 행해졌던 “정무”와 “의례” 등을 “복원”하여 재현할 필요가 있다. 저 희경루가 준공된 이후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시민대상 시상식을 이곳에서 하면 어떨까. 훌륭한 뜻을 가진 젊은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을 위해 귀감이 되는 향인을 포상한다면, 그 자리가 희경루라면, 누구나 이를 환영하고 박수를 친다면, 이 또한 “함희상경(咸喜相慶)”이 아니겠는가. “어찌 다만 특별히 한 누각에 그칠 뿐이며 한 고을에 그칠 뿐이라.”

참고문헌

- 김덕진, 2019, 「15세기 광주목 읍호승강과 희경루」, 『조선시대사학보』 9, 조선시대사학회
김영국, 2015, 「광주목 희경루와 그 제영」, 『한국언어문학』 93, 한국언어문학회,
윤진영, 2002,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喜慶樓榜會圖』 고찰」, 『동악미술사학』 3, 동악미술사학회
조광현, 2020,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근무평가와 인사이동」,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천득염·김민주, 2010, 「광주목 희경루의 복원 연구」, 『건축역사연구』 19-6, 한국건축역사학회
필문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향토문화개발협의회·광산이씨대중회, 『광주목의 복호와 희경루의 역사 활용 방안 학술대회』, 2021. 5. 24.

전라병영을 찾은 사람들과 민속 생활사 현장

전라병영의 강진 이영과 축성, 1417년

전라병영은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의 총 지휘부였다. 원래 1398년(고려 공양왕 원년) 광주에 설치했는데 1417년(태종 17)에 강진으로 옮겼다. 군사시설이라 무엇보다도 성이 중요했다. 당시 전라 병사 마천목은 석달만에 축성을 마무리 한다. 원래 도강군(道康郡)이 있었는데, 탐진현(耽津縣)과 합하여 강진(康津)이라 하면서 강진읍에 자리를 잡는다. ‘강진’의 역사지명이 이때부터 비롯된다. 원 도강군 터에 전라병영이 자리잡기 때문에 축성도 빨랐던 것이다.

병영의 상주 군관과 이졸들, 관인들, 번을 스러 오가는 전라도 57관의 군병, 상인들, 예인들도 오갔거나 인근에서 살았다. 표류를 했던 “하멜” 일행도 머물렀다. 을묘왜란이나 임진정유왜란을 극복한 기지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전쟁 때는 함락된다. 1895년 군사기능은 막을 내린다. 이후 학교가 들어서고 면소재지로서 행정중심지가 된다. 그 500년의 전라병영 역사는 “문화재”로 남았다.

전라병영성은 국가 사적 제397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85호, 수인산성과 병영성 홍교는 전라남도 기념물, 한글목 옛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이다. 그리고 철비거북좌대, 조산, 중고마을 큰샘, 사도샘 등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이다.

1991년 목포대박물관에서 학술조사를 하여 1992년에 전라남도기념물이 되었다. 문화재명은 “전라병영성지”. 1997년 국가 사적이 되면서



그림 1 발굴 도면(북쪽 좌측이 연희당 권역, 사진 강진군) 조선후기의 전라병영 부근도(강진현지도, 1872, 규장각 소장)

“전라병영성”이 명칭이 된다. 앞으로 공간 자체, 즉 “전라병영”으로 문화재 명칭을 삼아 역사성을 이어야 할 것이다. 1999년부터 발굴조사도 15차례를 했고 성곽과 치, 여장, 문루 등을 복원했다. 2019년에는 종합정비계획도 세웠다. 해자에서 100개소 이상이 확인된 함정(陷穽) 유구는 국내 최초 사례이다.

이같은 “유적”의 조사, 정비와 함께 관심을 가져할 것이 또 있다. “사람”이다. 전라병영의 영지(營誌)에 따르면 4개면의 민호는 1,889호,

인구는 5,973구였다. 이 가운데 지금의 병영면에 해당하는 고군내면에만 1,388호, 4,286구. 군병은 기병 3,581명, 보병 939명 등 남포군(納布軍)이 9,721명, 어변군관 200인, 교련관 13인, 윤희군 등이 1,134명 합하여 10,855명이 나온다. 남



사진 1 전라병영 초대병사 마천목 장군 승모제-보물 좌명 공신녹권(사본) 특별전(2019.4.19., 제22회 전라병영성 축제, 해설 김희태, 사진 마동욱)

포군은 각 고을에 살면서 교대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만 실로 적지 않은 군병. 여기에 각읍의 봉수대 별장 296인, 5개 진관의 보병 33,292명이니 전라병영 관련 군병만 해도 많은 인원이다.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과 연희당, 사압당, 1487년

전라병영 사람들의 기록과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우선 전라병영에 왔던 전라도관찰사 김종직(1431-1492)의 시를 보자. 문장가이자 사람과 학자로 1487년(성종 18) 5월 27일 전라도관찰사로 제수된다. 1488년 5월 7일 한성부 좌윤으로 옮긴다. 관찰사는 전라병사를 겸임하게 되니 순찰을 나섰을 것이다. 문집에 이 시 바로 앞에 “팔월 초일 일에 아침 일찍 영암을 출발하여 월출산을 지나다[八月初一日早發靈巖過月出山]”가 있어 1487년 8월 초에 전라병영을 들러 정무를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 각 군현과 군진 관원들의 포폄(褒貶)도 했을 것이다. 1년 2회의 근무평정 작업. 전라도 57관의 수령과 전라도도사 전주판관, 6개 역(삼례, 오수, 청암, 경양, 벽사, 제원), 조경묘령과 별검, 경기전령과 참봉, 전라좌우수영 예하 수군진 첨사와 만호 등 90여명이다.

이 같은 정무 처리는 동헌이나 누각에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희당이었을 것이다. 김종직의 시에는 사압당(射鴨堂)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 궁실조에 연희당(燕喜堂)이 나온다. 전라병사의 휴식장소이자 연회장이다. 병사 집무실인 동헌은 운주헌(運籌軒)이고 그 서쪽에 연희당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연희당은 1688년(숙종 14) 병사 민섬이 중건했는데 1851년(철종 2)에



사진 2 전라병영성

소실되어 윤명검이 증견하였다. 연희당조에 세수의 시가 보인다. 첫 번째가 김종직의 시로 『점필재집』에는 “술 마시다 내상의 벽상운에 화답하다[醉和內廂壁上韻]”라는 제목이다.

세류영(細柳營) 안 사암당(射鴨堂)에
장군과 함께 곁상에 기대 있노라니
하늘 가 인일에 안개가 짙었는데,
막 밖에 군대도 강하여라

細柳營中射鴨堂
元戎聊共倚匡床
天涯人日煙花膩
幕外魚麗隊伍強

다만 강산이 귀한 손에게 바치는 것 사랑스럽고
풍악소리로 하여금 이별 시름을 내지 말게 하라
내일 아침에는 또 승평군으로 향하리니
원추리와 차 꽃이 석양에 아리 따우리

祗愛江山供勝客
莫教絃管攪離腸
明朝又向昇平郡
萱草茶英媚夕陽

세류영은 군율이 엄한 곳이라는 고사가 있으며 전라병영의 별칭이다. 강진 출신의 해암 김응정(1527-1620)의 시조에 “가난을 파려하고 세류영에 도라드니”라는 구절도 있다. 시어에서 인일(人日)은 음력 정

월 초이렛날을 말한다. 원추리는 꽃이 7-8월에 핀다. 월출산 시를 보면 영암을 지나 전라병영을 거쳐 승평군(순천도호부)으로 이동한 것 같다. 월출산을 지은 시에 8월 1일이라 표기하고 있어, 병영은 원추리 꽃이 피는 8월 초일듯하다. 인일이 음력 1월 7일인데 일곱 가지 채소 국을 먹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시를 읊는 풍속의 고사가 있다. 어쩌면 ‘7일의 인일’이라기 보다 ‘일곱가지 채소’의 의미를 형상화 한 것 같다. 사당에서의 연회는 병영의 들녘이나 수인산 언저리에 치천으로 널린 야채와 산나물 일곱가지가 아니었을까. 정무와 사회 사정에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를 지었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남곤(南袞)의 시도 있는데, 1511년(중종 6) 11월 25일(신미)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되니 순행 길이였을 게다. 양곡소세양(1486-1562)의 병영중창기도 1530년(중종 25) 전라관찰사 인연이다. 1650년(효종 1)에 세운 작천석교(鵲川石橋) 신창비도 전라병사 선정비와 함께 있다. 병영성 가까운 작천에 세운 11칸의 석교를 세운 기록이다. 우암 송시열(1607-1689)은 1688년(숙종 14) 7월 연희당기를 짓는다. 담헌 이하곤(1677-1724)은 1722년(경종 2) 11월 8일 진남루에 올라 시를 읊는다. 장인인 옥오재 송상기(1657-1723)의 유배처 강진으로 인사차 남행길에 들렀다. 송상기는 이하곤의 시에 차운시를 짓기도 한다. 이 무렵 눈이 한자쯤 쌓였다고 한다. 강진 사람들은 “근년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렇듯 여러 기록이 있다. 더 찾고 모아야 할 것이다.

병사가 성안 줄당기기 보기를 독려, 1892년

전라병영에서는 군졸들이 편을 가려 줄당기기[索戰]를 했다. 병사는 주민들에게 성안에 들어 와 줄당기기를 보도록 영을 내린다. 아침을

먹고 나서서 장대 앞에서 행해지는 줄당기기를 보았다. 어느 해는 밤부터 줄당기기를 구경하기도 했다. 사람사는 모습이나 민속 생활사는 기록으로는 거의 찾기 어렵지만, 이처럼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1892년(고종 29)부터 1894년 사이 3년에 걸쳐 ‘색전(索戰)’을 했던 기록을 보자. 강진 유생 강재 박기현(1864-1913)이 남긴 일기 『일사(日史)』에 4회가 나온다.

- ① 1892년 1월 15일 을해. 아침을 먹은 뒤 병영 장대 앞에서 색전(索戰)을 구경하였다.[『日史』 壬辰正月十五日 乙亥 晴 朝後 賞索戰於將臺前]
- ② 1893년 1월 15일 기해. 나는 (전라병영) 장대(將台) 앞에서 색전을 구경했다.[癸巳元月十五日 己亥 余翫索戰于將台前]
- ③ 1894년 1월 11일 기축. 어제 밤부터 밤에 색전을 구경했다.[甲午正月十一日 己丑 自日昨夜 夜觀索戰]
- ④ 1894년 1월 13일 신묘. 맑음. 밤에 병공(兵公, 병사)이 영을 전달하기를 성내로 들어 와 색전을 구경하라고 했다. 나도 또한 구경하러 갔다.[十三日 辛卯 晴 夜兵公傳令 入索於城內 而玩戰焉 余亦觀光]



사진 3 제21회 전라병영성축제 줄당기기(2018.4.20., 사진 강진군청)

전라병영의 줄당기기 ‘색전(索戰)’은 병영 소속 장졸의 동질감과 공동체 단합의 집단놀이로 행해졌을 것이다. 전라병사가 영을 내려 관내 민인이 보도록 한 것을 보면 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심 위무와 민정 안정을 통한 주민 통치의 편의성을 따르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족까지 참여하여 관광을 한 것을 보면 축제적 욕구의 충족과 오락을 추구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몇 일간에 걸쳐 한 것을 보면 정초의 신앙성과 주술성, 생산의 풍요 등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듯 싶다.

『일사(日史)』는 1891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장흥·강진 일대 향촌 사회의 동향과 함께 박기현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유생들과의 교유관계, 사회 민속 생활사 자료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특히, 갑오년(1894)을 전후한 시기 장흥·강진 일대의 동학농민혁명군측과 관군측의 동향, 당시 전투상황 등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이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06호(1999.2.26 지정)이다.

전라병영 악공의 후예, 가야금 명인 함동정월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산조부분 인간문화재 함금덕(咸金德, 1917-1994)이 강진출신이다. 예명은 함동정월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보유자였다. 강진, 특히 병영 일원에서는 함동정월 명인의 부친 함일권(咸一權, 일명 영권, 일곤, 1881년생)이 전라병영의 악공(樂工)이라 전해 온다. 국악계에서도 알려진 사연이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 함채룡(咸采龍, ?-1889)이 악공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

1895년(고종 32)에 간행한 『호남영지』(규장각 소장, 규12189) 가운데
『전라병영영지』를 보면 군병조에 취타군(吹打軍)이 두군데 보인다.

- ① 취타군 400명은 납포군인데 각 읍에 소속되어 있다.(吹打軍 四百名
..... 以上納布軍 散在各邑)
- ② 취타군(吹打軍)은 7명인데 돌아가면서 입직하고 병영 곁에서 거주하
다.(吹打軍 七名 輪回入直 居在營下)

군병이란 군역의 의무를 지닌 양인 신분의 정남(丁男)을 말한다. 남
자 16세 이상이면 병역의무자가 된다. 상근 형식으로 현역병 근무하
는 경우도 있다. 1년에 2필의 군포만을 내고 복무를 면제받기도 하는
데 납포군이라 한다. ②에서 취타군 7명의 윤회 입번은 상근형식이다.
거주지도 해당 관청 부근. 그래서 「居
在營下」, 즉 병영성 곁에 거주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취타군의 취(吹)는 부는 악기, 타
(打)는 치는 악기이다. 명칭으로만 보
자면, 함씨가 사람들은 피리와 북에
능했다고 하니 ‘취타군’으로 볼 수 있
겠다. ②의 ‘취타군’은 상근이고, 전라
병영성 곁에서 거주한다 하고, 함씨집
안의 생가도 성밖 ‘지로리’로 전해지
고 있어 ‘전라병영 악공’은 ‘전라병영
취타군’을 말한다고 하겠다. ①의 취
타군 400명은 상근 복무를 앓고 군포
만 내고 각 고을에서 살았다. 조선후
기 전라도 56개 고을이니 각 군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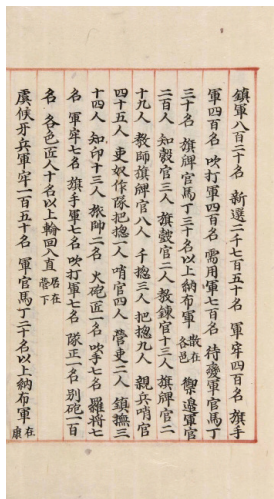


그림 2 『호남영지』(규 121892, 1895년)의
『전라병영영지』, 군병(軍兵)조. 두번째 줄에
취타군 400명(각읍), 일곱번째줄에 취수 7
명, 여덟번째 줄에 취타군 7명(居在營下)
이 보인다. 함동정월의 선대는 병영성 밖
[영하]에 거주하던 취타군으로 보인다.



사진 4 함동정월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난장(2017.5.30., 주최 남도민속학회, 헌정공연 최진교수)

군 7명쯤이다.

‘윤회 입번’, 곧 정해진 근무 시간을 따라 돌아가며 차례에 따라 근무(入番) 한다니, 근무시간 외 성박 지로리 집에 있을 때에는 그곳이 풍류방이 되었을 것이다. 함동정월 부친 함일권의 출생연도가 1881년인데 전라병영이 폐영되던 때(1895)로 보아도 열다섯 살이다. 군역의 의무를 지나는 열여섯 살에는 이르지 못한채 전라병영은 막을 내린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함동정월의 할아버지 함채룡이 전라병영의 악공, 취타군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참고문헌

『호남영지』(규121892, 1895)

『일사(日史)』(강재 박기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강진군·조선대학교박물관, 『전라병영사연구』, 1999.

전경길, 『함동정월의 삶과 예술 연구』, 중앙대대학원 한국음악과 석사논문, 2002.

남도민속학회, 『남도의 굿판, 함동정월 가야금 100년과 진도의 상장례』, 월례학술발표회, 2017.5.27

신석기시대의 광양 벚굴과 고려시대의 벌교 꼬막, 특산물

1만년의 역사, 광양 돈탁 패총의 벚굴

2011년 1월 광양 오사리 돈탁 패총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 어느 유적이건 조사를 하면 당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된다. 유독 눈이 가는 유물이 있었다. “벚굴” 패각이다. “갓굴”이라고도 한다. 광양은 지금도 “벚굴”이 지역의 명품 특산물이다. 섬진강 기수역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패총유적이 신석기시대라 하니 “광양 벚굴”의 역사성이 1만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시 지원으로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2012년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신석기시대의 패총 가운데 신안 가거도 패총과 완도 여서도 패총, 여수 안도 패총에서는 외양암초성 패류인 두드럭고둥, 소라, 삿갓조개, 홍합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산 가도 패총과 광양 돈탁 패총, 광양 의암 패총에서는 내만성패류인 참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패총유적에서 출토된 패류는 52종인데 앞의 6종이 주를 이루므로 이들이 선사시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 하겠다.

갓굴(벚굴)은 지금도 광양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오랜 역사성을 가늠할 수 있다. 홍합의 경우도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공물조에 올라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진, 고흥, 광양, 보성, 순천, 영암, 진도, 장흥의 토산조에 기록되어 있어 선사시대 이후 지역 특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어류는 모두 42종인데 군산 노래섬 패총과 완도 여서도 패총에서 출토된 어류는 전체 어류 가운데 참돔이

50% 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노래섬 패총에서 민어가 10%를 점하고 있어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점과 연관된다 하겠다. 광양 의암 패총과 둔탁 패총에서는 내만성 어종인 감성돔, 송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산 노래섬 패총과 완도 여서도 패총에서는 복어가 상당량 점하고 있다. 출토유물 가운데 점유빈도가 높은 이들 어종이 당시의 특산물이라 하겠다.



사진 1 광양 오소리 둔탁패총 출토 갯굴
[벚굴] (사진 목포대학교박물관, 2012)



사진 2 광양 벚굴(사진 광양시청 2019.12.30)

보성 호동의 고려시대 패총유적과 벌교 꼬막

고려시대의 패총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은 꼬막이다. 이는 마한 문화연구원에서 2008년에 발굴 조사한 보성 호동유적의 2개소 패총을 통해 알 수 있다. 패각의 범위는 11m에서 20m, 최대 두께 100cm로 층위는 8개층인데 꼬막의 비율이 87%에 이른다. 사례가 드문 역사시대 패총유적으로 주 구성층이 꼬막인 고려시대 패총 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호동 유적은 보성군 벌교읍에 속하는데 벌교 꼬막 산지와 바로 이웃한 곳이다. 이 같은 역사성이 이어져 보성 벌교 꼬막은 2009년 2월 25일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었다. 뽕배를 타고 꼬막을 채취

하는 보성 빨배어업은 2015년 12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보성 벌교-순천 갯벌은 2021년에 신안 갯벌, 고창 갯벌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꼬막은 조선 초기 지역 특산물을 알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흥양현(현 고흥) 토산조에 강요주(江瑤柱)로 올라 있다. 벌교 꼬막 주 산지인 장도와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다녀간 서긍(徐兢, 1091-1153)의 사행보고서인 『선화봉사고려도경』 [제23권 잡속(雜俗)] 토산조의 기록은 중국에까지 알려진 전라도 토산에 대한 내용이다. 나주도(羅州道)의 소나무가 과실과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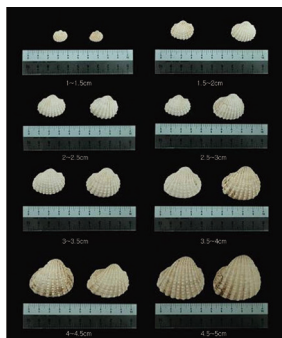


사진 3 호동 유적 패총 출토 꼬막의 각장(殼長)(사진 마한문화연구원, 2011)



사진 4 보성 호동 유적 패총 단면. 고려시대 패총유적으로 꼬막이 87%를 차지한다. (사진 마한문화연구원, 2011)



사진 5 보성 벌교 꼬막 채취 빨배어업(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사진 김준, 2010.10.27.)

주, 국과 적에 쓰인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이어서 “나주에서는 백부자(白附子)·황칠(黃漆)이 나는데 모두 조공품[土貢]이다.”는 내용이 있다. 백부자는 관백부(關白附), 노랑돌쩌귀라고 하며 진통작용이 있어 약재로 쓴다. 황칠나무의 황금색 수액은 고급 칠의 재료로 뛰어나고 귀하여 왕실에서 사용하였다. 중국 당나라 재상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통전(通典)』에 “백제의 황칠수(黃漆樹)는 6월에 진액을 취해서 기물(器物)에 칠하는데 황금 같이 그 빛이 번쩍번쩍 빛나서 안광을 빼앗는다.”고 하였다. 백제 때부터 특산물로 중국의 사서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황칠이라는 시에서 ‘궁복산에 가득한 황칠나무를 그대 보지 않았던가(君不見弓福山中滿山黃)’라 하였다. 궁복산은 완도에 있는데 황칠나무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이다.

1271년(원종 12) 6월 23일조의 『고려사』 기록에 몽골에서 고려 조정에 희귀한 물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진도에서 남해와 함께 ‘청등(靑藤)’, ‘팔랑충(八郎虫)’, ‘비자나무 열매[樅實]’, ‘동백 열매[冬栢實]’가 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까지 알려진 전라도의 특산물인 셈이다. 청등과 팔랑충은 약재로 알려졌다. 진도군 조도면에 속한 청등도(靑藤島)라는 섬 이름이 지금도 보인다. 천연기념물인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는 수령 600년이 넘는데 고려시대의 임희현이 있던 곳이다. 고려 조정을 통하여 몽골에 보내진 ‘비자나무 열매’를 땀던 나무일 성싶다.

수중문화재 출수 고려 목간을 통해 본 특산물

고려시대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로 출수된 목간을 통해서도 특산물의 내용과 유통을 알 수 있다. 태안선은 1131년(인종 9)의 탐진현(耽津

縣)의 도자기 운반선이다. 탐진현은 지금의 강진군 남부에 있던 고려 시대 고을명이다. 1208년(희종 4)의 마도 1호선은 회진현(會津縣, 나주), 죽산현(竹山縣, 해남), 수령현(遂寧縣, 장흥), 안노현(安老縣, 영암)의 곡물[백미, 중미, 콩[太, 豆], 벼[租], 조[粟]]과 발효식품[젓갈[魚醢], 고등어 젓갈[古道醢], 게 젓갈[蟹醢], 메주[末醬], 알젓갈[卵醢]]등을 운반하였다.

마도 2호선은 1197년(신종 1)-1213년(강종 2)의 장사현(長沙縣, 고창), 무장현(茂松縣, 고창), 고부군(古阜郡, 정읍), 고창현(高敞縣)의 백미[白米], 중미[中米], 콩[太, 豆] 등 미곡류, 메주[末醬], 누룩, 알젓갈[卵醢], 꿀[精蜜], 참기름[眞] 따위를 실어 날랐다.

마도 3호선에는 1265년(원종 6)-1268년(원종 9)의 여수현(呂水縣, 여수)의 생전복[生鮑], 전복젓갈[生鮑醢], 마른 홍합[乾蜆], 홍합젓갈[蜆醢], 물고기기름[魚油], 육포[개고기포], 상어[沙魚], 직물, 겉보리[皮麥]이 실려 있었다. 전라도의 각 군현에서 개경의 세력가에게 보낸 점을 보면 품질이 뛰어난 지역 특산물이다.

고려시대의 전라도 특산물 가운데 손꼽히는 것은 고려 청자이다. 강진 대구면 일대에 188개소, 해남 산이면 진산리와 화원면 신덕리 일원에 227개소, 부안 진서면 진서리와 보안면 유천리 일원에 77개소의 청자 요지가 분포되어 있다. 개별 가마터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을 보면 자기소(磁器所)는 전국 120개 군현에 139개소가, 도기소(陶器所)는 152개 군현에 185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라도에는 30개 군현에 31개의 자기소, 29개 군현에 39개의 도기소 등 모두 70개소가 있었다. 중국 북송의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이나 태평노인의 『수중금(袖中錦)』에 고려의 비색청자(翡色靑瓷)를 천하제일로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 내내 전라도는 청자 생산의 중심지로 천하제일이라 할 것이다.

천하에 소문난 삼향(三鄉)의 대화살(竹箭)

고려시대 후기와 조선시대 전기의 특산물인 『세종실록지리지』(1454, 단종 2)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 성종 12/신증본 1530, 중종 25)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철 수공업 특산물을 생산했을 철장(鐵場)은 6개 군현에 7곳이 있고 연철과 정철을 생산하였다. 생산량은 5,404근 12냥쯤이고 군기감, 선공감, 전주 등에 바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철이 기록된 곳은 무주(대덕산), 금산, 진산[월외리(月外里)], 광양[목곡(木谷)], 광산[장불동(長佛洞)], 동북(무등산), 무안[철소리(鐵所里)], 창평(무등산), 함평[사내포(沙乃浦)], 웅암포(甕巖浦)], 화순(냉천)이다.

주철[水鐵]은 무안[해제리(海際里)], 동(銅)은 진산[달왕산(達往山)], 자석(磁石)은 진산[암정리(巖井里)]에서 나왔다. 자연동(自然銅)은 순창, 강진, 고흥, 영광, 창평, 해남[황원리 망포(芒浦)]에서 나왔다.

소금을 생산했던 염소(鹽所)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12개 군현에 60개소, 가마 수는 2개 군현에 143개소가 실려 있다. 특히 나주목은 염소가 35개소, 영광군은 가마가 113개소가 있었다. 염창은 9개 군현에 있었는데 염간(鹽干)은 1,725명, 소금 생산량은 5,771석이었다. 나주목은 오늘날의 신안군 섬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록은 신안 지역에 있었던 염소, 염창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나주목 염창조에는 “나주 판관이 주장하여 민간의 면포(綿布)와 무역해서 국용(國用)에 이바지한다.”라는 기록이 있어 염창의 관리를 나주목의 판관이 했고 면포와 무역하여 국용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영암 염창조에는 “고려 공양왕 원년(1389) 기사에 해진(海珍) 백야포(白也浦)의 염간을 옮겨 붙여서 군에게 창고를 설치하고 인하여 해남창이라 하고, 군사(郡事)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소(茶所)는 무장현 2곳[용산(龍山)·재역(梓亦)], 장흥도호부 13곳



사진 6 1917년의 무안 압해도 대천리 염전(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사진 『전남사진지』, 목포신보사, 1917)

[요량(饒良)·수태(守太)·칠백유(七百乳)·정산(井山)·가을평(加乙坪)·운고(雲高)·정화(丁火)·창거(昌居)·향여(香餘)·웅점(熊岾)·가좌(加佐)·거개(居開)·안칙곡(安則谷)]이 있다.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보물)에는 859년(헌안왕 3)에 국왕이 보조선사에게 차(茶)와 약(藥)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 관련 금석문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토산으로 차(茶)가 기록된 곳은 고부, 고창, 무장, 부안, 순창, 옥구, 정읍, 태인, 흥덕, 강진, 고흥, 광양, 광산, 구례, 나주, 남평, 능성, 동북, 담양, 무안, 보성, 순천, 낙안, 영광, 영암, 장성, 장흥, 진원, 함평, 해남, 화순이다.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과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은 2018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죽전(竹筴)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6도 63개 고을 94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전라도가 24개 군현에 47개소로 가장 많다. 광주 1개소, 전북 5개 군현에 7개소, 전남 19개 군현에 32개소가

다. 특히 나주의 삼향죽은 천하에 제일이라고 알려졌다. 전라도관찰사 김종직이 지은 「금성곡(錦城曲)」¹²수 가운데 7수에서 읊은 내용을 통해 일 수 있다. 전라도 관찰사 부임은 1487년(성종 18) 5월 27일이다. 이무렵 나주 순행길에 삼향죽을 보았을법하다.

산과 바다는 아름다워 빼어난 기운이 새롭고,	山海扶輿秀氣新
예부터 다만 명신(名臣)을 낸 것 뿐 아니다.	古來不獨出名臣
삼향(三鄉)의 대화살(竹箭)이 천하에 소문나니,	三鄉竹箭聞天下
석석(錫石)과 단은(丹銀)이 어찌 보배라 할 것인가.	錫石丹銀豈足珍

『조선왕조실록』에는 “삼향 진죽(三鄉箭竹)”을 궁궐의 후원에 심기 위해 전라도 관찰사에게 50포기씩 캐어 보내도록 하고, 어통개전(御筒介箭)과 어시(御矢)를 만드는 데 쓰이고, 궁중에서 각종 행사 때 상품으로 하사되고, 가장 굳세고 강하여 온 나라에서 쓰는 화살대가 모두 삼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목포대학교박물관·광양시, 『광양 오사리 돈탁패총』, 2012.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완도군, 『완도 여서도 패총』, 2007.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신창동 유적 사적 지정 20주년 기념 특별전 2,000년 전의 타임캡슐』, 2012.
 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한국도로공사, 『보성 호동·고흥 신촌유적』, 2011., 239~240쪽.
 김희태·이명현 외, 『삼향 죽전(三鄉 竹箭) 향토지명과 토산물의 문화자원화 방안』 『향토문화』 34,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5.

해남의 경관 명소, 어성교와 남천교(홍교)의 중창석비

1747년(영조 23) 어성교중창석비(漁城橋重創石碑)

“백치(白峙)의 이(李) 제(弟)가 어성(漁城) 아래에서 천렵을 했다. 나는 죽도(竹島)에서 먼저 가고, 창아(昌兒)와 흥아(興兒)는 어제 백치에서 자고 이(李) 제(弟)와 함께 왔다. 근처의 여러 사람들과 송정(松汀)의 이(李) 생(生)이 와서 20여 명이 모였는데 잡은 물고기는 겨우 수십 마리였으니, 별로 흠족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러나 백치와 송정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 크게 잔치를 벌였으니, 오늘의 모임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모임이라 할 수 있겠다.”(白峙李弟設川獵於漁城下 余自竹島先赴 昌興兩兒昨宿白峙 與李弟來 近處諸人及松汀李生來 會二十餘人 獵魚僅數十尾 可謂不得意 而白峙松汀設盛饌大享 今日之會亦可謂不易事也)

어성, 백치, 송정, 죽도는 땅이름-지명이다. 이제, 창아, 흥아, 이생, 20여명, 그리고 이 글을 쓴 주인공 “나”. 어성(漁城) 아래 하천에서 천렵을 하는 경관이다. 여름철일 것 같다. 어성은 어디이고 그들은 누구



사진 1 어성교중창석비 탁본 조사(윤여정, 정선중, 김희태, 천기철, 정윤섭, 김승기, 2022.6.17.)



사진 2 어성교중창석비 뒷면에는 글씨를 새기지 않았다. 저 농수로의 끝부분이 어성포이고 어성교가 있다.

이며 언제일까.

윤이후(尹爾厚, 1636-1699)가 남긴 『지암일기』 1697년(숙종 23) 8월 2일의 기록이다. 당시는 음력을 사용했으니 양력으로 치자면 9월 16일이다. 어성은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백치는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송정은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죽도는 해남군 화산면 금풍리에 있는 마을이다. 창아는 윤이후의 아들인 윤창서, 흥아는 윤흥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하천이라면 이리 저리 연결된 길목일 것이고 응당 다리가 있을 것이다. 저 천렵하기 몇 년전 일기를 보니 어성교가 나온다. “어성교(漁城橋) 가에 이르니, 이석신(李碩臣) 형제가 언역(堰役)을 보기 위해 길가에 나와 앉아 있기에, 나는 잠시 이야기를 하고 일어났다(到漁城橋邊 李碩臣兄弟爲看堰役出坐路上 余與暫話而起).”는 기록. 1692년 4월 11일조이다.



사진 3 어성교종창석비 탁본

저 다리를 보기 위해 나섰다.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지금 다리는 1980년 시공했다. 시공청은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다. 연장 거리는 86.5미터. 1925년 『해남군지』를 보니 어성교는 8칸이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어성교 옆에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찾아 보니 해남향토문화 전자대전에 “조선시대 어성교의 중수비가 송정마을 창고 앞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정운섭 학우가 사진을 보내 왔다. 삼산면 송정마을의 수로에 걸쳐 있다. 고정희시인 생가 동네.

2021년 4월 23일 현장에 갔다. 마을 앞 길가의 농수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듯 비료포대가 녹아 내린 흔적이 두툼하다. 돌맹이를 주워들고 툭툭툭 떼어낸다. 타고 갔던 택시기사도 거든다. 대시주, 석공 등 기록이 드러나고 “건륭십삼년(乾隆十三年)” 연기도 확인된다. 1748년(영조 24)이다. 가로로 새긴 비제는 “어성교중창석비(漁城橋重創石碑)”. 1925년 기록의 8칸 어성교 보다 180여년이 올라간 기록을 확인한 것이다. “중창”이라 했으니 그보다 앞선 다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저 『지암일기』의 1692년 기록에 보이는 어성교일성 싶다.

어성교가 있었던, 천렵을 했던 포구 어성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37 해남 산천조에 “어성포(魚成浦): [해남]현의 남쪽 10리에 있다(魚成浦 在縣南十里)”고 나온다.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은 ‘가을 저녁 어성에서 노닐다(秋晚遊魚城)’는 시를 남긴다. “긴 하천에 해가 지고 늦추워 밀려오지만 북두성 하늘 너머로 기울어져 돌아왔네 평생 가을다운 멋 얼마나 슬퍼하였던가 오늘 술잔을 입에 대고 억지로 달래보네[日落長川生晚寒 歸來天外斗闌干 平生多小悲秋意 今日含杯強自寬]”. 이 어성포, 어성교는 해남팔경의 남포귀범(藍浦歸帆)으로 형상화된다.

차일 피일 하다가 일년이 지나 다시 조사를 나섰다. 2022년 6월 17일. 탁본을 하기 위함이다. 늘상 여기저기 동행했던 남도불교문화연구회의 윤여정님, 정선종님. 그리고 해남의 학인들도 나선다. 천기철님, 정운섭님, 김승기님. 송정리 사영주(60세) 이장님께 연락하니 “워메 우리는 제대로 관리도 못했는디” 하면서 반긴다. 사운홍(82세)님과 정기석님(62세)도 길을 가다 멈추어 여러 얘기를 들려 준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연동에서 문소동, 수정동을 넘나들었던 세곳의 고개, 남새비재, 설령이재 등의 땅이름도 듣는다. 고산의 손자가 윤이후이고, 그의

『지암일기』에 어성교가 나오니 서로 연계가 된다.

탁본조사를 하면서 자세히 살피니 “건륭십삼년” 연기는 다시 확인 되는데, 간지 부분이 깨져서 판독이 어렵다. 두 번째 글자는 “卯”자의 아랫부분으로 읽힌다. 아마도 “丁卯”일 것 같다. “건륭13년”은 1748년, “정묘년”은 그보다 앞선 1747년. 이런 경우 간지를 취함으로 어성교창석비의 건립연대는 1747년인 셈이다. 대시주(大施主)와 차시주(次施主), 별좌(別座), 공양주(供養主), 석공(石工) 등이 나온다. 가선과 통정 등 품계와 인명이 새겨 있다. 승려도 보인다. 석공은 김해선(金海先)과 승치향(僧致向).

몇가지 의견을 나눈다. 송정과 봉학 마을 역사는 물론 해남의 보배이니 농수로에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니, 마을 한쪽으로 옮겨 놓거나 어성교 원자리로 세우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 남천교 중수비가 발견되어 새로 지은 해남군청 앞에 역사공원을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가도 좋고. 영든 관리는 잘 하자는 논의로 마무리. 다음날 들리는 소식. 군청 문화예술과장과 삼산면 총무팀장이 현장 확인을 하였고, 건립을 추진중인 해남역사박물관에 세우기로 하고 우선 면사무소로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해남 학인들의 저력일 것이다.

1781년(정조 5) 남천교중수기비(南川橋重修記碑)

어성교를 찾게 된 것은 2019년 4월 해남읍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남천교 중수기(南川橋重修記)」비와 「청류정(聽流亭)」명 표석의 내용을 검토하면서이다. 해남군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였고, 그 보고서에 남천교 중수기에 대해 실었다. 이 과정에서

어성교중창비의 소재를 알게 된 것이다. 『남천교중수기』 비는 『해남문헌집』(1989)에 군청 곁에 있다고 하는 등 향토자료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자취를 알기 어려웠는데 다시 드러났다.

「남천교 중수기」비는 1781년(정조 5) 4월에 세운 것으로 남천교를 2가(架)의 홍교로 개건 중수한 기록을 적은 석비이다. 원래는 지금의 해남읍 읍내리와 평동리를 경계로 흐르는 해남천을 가로 지르는 남천교 곁에 있었다.

다리의 형식은 홍교로 구성하여 지명이 ‘홍교’가 되었다. 이 홍교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새다리가 들어섰다. 『해남군지』(1925)의 “사칸이고 예전에는 홍교(四間舊虹橋)”라는 구절로 보아 1925년 이전에 홍교는 바뀐 것 같다. 광복 직후 사진에서는 통행로에서 목조 가구도 보인다. “홍교”는 일반 석교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땅이름은 남아서 지금도 ‘홍교’, ‘홍교로’ 등의 역사 지명이 해남인의 생활 속에 깃들여 있다. 홍교가 들어간 상호가 즐비하다.

해남읍성의 남문 밖에는 금강산에서 발원한 큰 하천이 동문 앞으로 흘러 남문 앞을 해자처럼 휘감고 있다. 이 물길을 건너는 다리가 남천교이다. 남문은 관인들이나 주민들이 읍내외로 드나드는 주 관문으로서 일종이 정문 같은 구실을 하였다. 해남을 오가는 이는 누구든 남천교를 지나 남문으로 드나들었던 것이다. 문루는 “정원루(靖遠樓)” 또는 “해안루(海晏樓)”라 하였다.

남천교는 언제 어떤 형태로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큰물이 넘나들며 훼손이 되곤 하여 설치와 중수를 반복했을 것이다. 1778년(정조 2) 여름에 물이 할키고 지난 뒤에 흙과 나무를 써서 만든 흙다리

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해마다 손을 보는데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랐다. 이에 1781년(정조 5)에는 홍교로 개건된다. 현감 김서구의 주도에 힘입어 건축할 수 있었고 그 곁에는 정자를 지어 청류정(聽流亭)이라 했다.

남천교 중수에 참여한 이들은 감관(監官) 정석준(鄭碩峻)과 김철주(金喆柱)는 건립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이다. 도색(都色) 안종후(安宗后)는 물자를 동원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화주승(化主僧)은 공사에 참여한 기술 인력과 시주 등을 총괄하는 직임으로 대흥사 승려 총념(揔念), 총밀(揔密), 봉찰(奉察)이 담당했다.

시주질(施主秩)은 24명의 인명이 새겨져 있다. 석수질(石手秩)은 일반 기능인 2명, 승려 2명이다. 전물(典物)은 제반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직역으로 1명이다. 음식 등을 담당하는 공양은 3인의 승려가 담당했다. 야장(冶匠)과 목정(木丁)은 각 2명씩이다. 그리고 여러 잡역 인부는 승려 장권 등 29인이다. 대흥사를 비롯한 해남 관내의 승려들일 것이다.

남천교 규모는 “홍교로 2개를 엮었고, 높이는 3장(丈), 너비는 10여 척, 길이는 수십 보, 두 개로 새긴 용두에는 풍경을 매달아 아래로 드리웠다.”고 하였다. 현재 단위로 추



사진 4 남천교중수기 석비 탁본(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정해 보면 높이는 9.09m이다. 너비는 300.3cm, 길이는 최소 18.2m 이상이다.

남천교의 개건 사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표본으로 당시 사회의 귀감이 되어 전해졌던 것 같다. 20여년 뒤 인근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은 김서구 현감과 해남 주민의 남천교 중수 개건 사례를 『목민심서』에 올린다.

1781년 남천교를 홍교로 개건한 이후 이곳의 경관은 “홍교유수(虹橋流水)”라 하여 해남 팔경으로 형상화되어 해남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송파 이희풍(松坡 李喜豐, 1813-1886)은 정원루에 올라 홍교유수(虹橋流水)의 아름다움을 읊었다. 『송파유고』에는 “제해안루(題海晏樓[海南])”로 올라 있다.

이희풍이 활동하던 무렵 해안루가 사진으로 남아 있다. 해안루 시 두 수 가운데 하나는 홍교에 넘치는 물, 푸른 무늬로 갈라지는 광경을 보고 읊었다. 강의 양쪽 언덕에 늘어선 버들은 그늘을 이루어 한 폭 그림 같다. 이윽고 저물녘인가. 누각 동쪽 난간에 비추는 밝은 달빛. 죽지사에 옥통소로 화창을 한다. 그 동쪽에 청류정이 있었다. 어쩌면 두 번째 “홍교수창록생의(虹橋水漲綠生漪)”의 시는 청류정에서 읊었을 것 같다.

홍교에 넘치는 물이 푸른 무늬를 이루고
양안에 드리운 버들가지가 그늘 그림같구나
누각 동쪽 난간에 비추는 밝은 달빛 아래
죽지사(竹枝詞)에 옥소(玉簫)가 화답한다

虹橋水漲綠生漪
楊柳陰陰兩岸垂
畫閣東欄明月下
玉簫和唱竹枝詞



사진 5 1차 조사 당시 어성교중창석비
(2021.4.21.)



사진 6 남천교중수비 현지 확인
(해남읍성 발굴조사, 2019.4.24.)



사진 7 군청 광장에 자리를 마련한 南川橋重修記 석비와 聽流亭 명 표석(2022.6.21., 사진 정윤섭)

「남천교중수기」비의 경우 원 자리로 옮겨 세우는 것이 역사성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장은 도시화가 이미 진행되어 버렸다. 따라서 읍내의 상징적인 공간에 옮겨서 보존했으면 한다. 군청 앞 광장에서 홍교로가 보이는 곳, 신청사 내에 마련 예정인 전시관이나 그 가까운 곳이라면 더 많은 주민들은 물론 해남을 찾는 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사 전시관에는 옛 지도 등 자료와 함께 역사성과 “청류유수(聽流流水)”의 상징성을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앞 구절은 『해남읍성』발굴보고서에 자료로 실은 남천교중수기비의 검토 논문의 맺음말에서 제안한 것이다. 근래 들으니 해남군청사 앞에 따로 세우고 안내판도 마련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심성속으로 다시 파고 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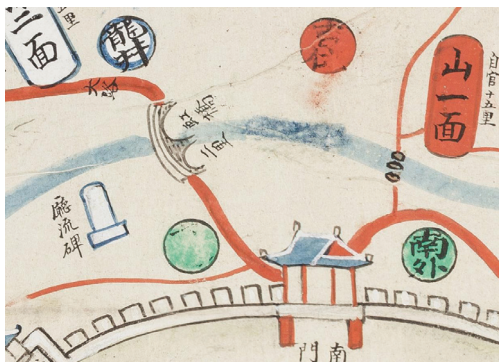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 지도에 기록된 홍교와 청류비(1872,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지역 산천의 경관은 보통 팔경으로 전한다. 해남 팔경은 금강폭포(金剛瀑布, 해남 금강골), 미암청풍(眉岩淸風, 금강산 미암산), 홍교유수(紅橋流水, 해남읍 홍교), 호산명천(葫山名泉, 호산 문필봉), 연봉제월(蓮峰霽月, 덕음산), 두륜귀운(頭輪歸雲, 두륜산), 남포귀범(藍浦歸帆, 어성교), 은사효종(隱寺曉種, 은적사) 등이 전해 왔다. 오랜 세월 에 홍교유수, 남포귀범 2경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두 곳의 석교중수증 창비 발견을 계기로 되살려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희태, 『해남 ‘남천교 중수기’ 비의 내용과 성격 검토』, 『해남읍성』,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해남군, 2021.
 윤이후 지음 ; 하영휘 외 옮김, 『윤이후의 지암일기』, 너머북스, 2020.
 디지털해남문화대전[<http://haenam.grandculture.net>]

신명나는 쇠가락, 깊이 울리는 양북 소리, 농악

호남여성농악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었다. 여성농악단은 전통시대의 사당패·남사당패의 활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전문 연희패다. 1960년대-1970년대에 특히 호남지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이들의 활동은 공연문화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례 유순자 상쇠의 ‘상쇠놀이’(쇠가락과 부포놀이)은 전문 연희자 특유의 멋과 신명을 보여준다. 설장구의 유점례 명인도 보유자로 인정 예고 되었다. 2022년 7월 21일자.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탓인지 근대기의 무형민속유산은 문화재 측면에서는 뒤쳐져 있다. 창극 같은 사례가 그렇다. 다행인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전형’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더 활발해 지고 있다. 호남여성농악도 몇 번인가 구례 현장을 가고 전문가(이경엽교수, 송기태교수)와 상의를 했지만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다만, 1년에 한번씩 문화재청에서 신규종목이나 보유자 공모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곤 했었다. 이제라도 지정 예고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유순자명인을 2011년인가 현장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전화드리니 반가움이 그득했다.

2021년 6월에는 농악 관련하여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전남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대통합 축하연이다. 통합을 넘어 대통합이다. 호남의 양대 가락인 우도농악의 본산이라 할 영광. 처음 지정 당시 보유자 전경환님과 김오채님이 이어 오던 신명나는 쇠가락. 언젠가부터 갈라져 활동하면서 서로 멀어져 가고 합체는 갈수록 어려웠는데

‘대통합’의 대의를 따른 것이다. 한걸음에 내달아 공연장에서 인간문화재 설장고 김동언님, 상쇠 문한준님, 보존회장 최용님. 사진한장 찰각.

2019년 11월에는 허전함을 다시 느낀자리가 있었다. 화순 한천농악 무형문화재 지정 40주년 학술대회. 남도민속학회 주최. 토론자로 나서 지정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했다. 40주년 기념이니 분명 귀하고 좋은 자리이다. 허전함은 보유자의 전승 관련해서이다.



사진 1 우도농악 대통합 축하연(2021.6.26., 영광예술의전당)



사진 2 화순 한천 농악(2018.3.1.)

노판순(성업)(1919-1992), 전전박(복일)(1932-1995), 노승대(1995-2015)보유자로 이어지다가 전수교육조교 박춘백 상쇠의 보유자 인정을 논의하던 중 2017년 유명을 달리하였던 것.

전남의 농악은 구례 잔수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 화순 한천농악, 우도농악, 고흥 월포농악, 곡성 죽동농악, 진도 소포 걸군농악, 완도 장좌리 당굿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이다. 광산농악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이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농악 관련 옛 자료를 하나 더 들춘다. ‘農樂’이란 용어에 관해서이다. 보통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일종의 조어 형식으로 만들어 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한때는 ‘농악(農樂)’을 ‘풍물(風物)’로 바꿔써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말하자면 문화재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흥 선비 남파 안유신(南坡 安由愼, 1580-1657)의 문집에서 ‘農樂’ 용어가 들어간 시를 찾은 것이다. 유두관농악 流頭觀農樂.

유두절에 농악을 관람하다

우뚝 선 한 깃발에 동풍이 휘몰아 불 때
너른 들에 북 치며 색동옷 입고 너울너울
변방 일 이미 평안하고 농사철 빨라지니
나랏님의 크나 큰 덕을 비로소 깨달았네

流頭觀農樂

勿旗一建颺東風
擊鼓郊原舞綵童
邊事已平農事早
始覺吾君聖德鴻

격고(擊鼓)과 채동(綵童)이란 말에서 신나게 북을 치는 모습과 색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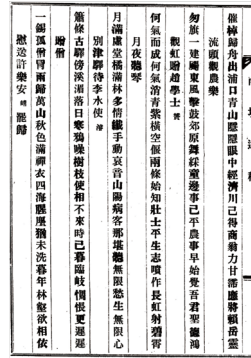


그림 1 流頭觀農樂(유두절에 농악을 관람하다)(안유신, 남파유고)

을 입고 춤을 추는 농악의 모습이 연상된다. 들판에 세워진 깃발이 동풍이 휘날리고, 색옷 입은 무동이 북을 치면 흥겹게 뛰노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農樂’이란 용어의 나이를 훌쩍 350여년 앞당긴 것이다. 이어서 몇가지 더 찾았다.

구리나발은 처음에 장하게 뿔어내고
 행군하는 깃발은 상대하여 벌려 펴려이네
 쌍징의 울림은 절도 있고
 양북의 소리는 깊이 울리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명절에 동네 잔치를 열 때면 늘 함께 하는 것이 농악이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농악은 우리와 떼어 수 없는 생활민속유산이다. 음악인가 하면 놀이이고, 그런가 하면 연극 요소도 있다. 제의와 무용도 곁들어 있다.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다. ‘농악’이란 한마디로 ‘농민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풍농을 기원하고 액운을 막기 위해 행하는 제반 문화현상’인 것이다.

農樂	
爲 茵 瓦 盆 盞 濁 醺 酬 讓 回 冠 淳 夕 霞 耀 烟 樹 彩 翠 錯 成 繡 帶 醉	摘 賊 先 擒 曾 除 草 當 除 根 所 以 農 丁 會 部 勒 如 用 軍 銅 角 噴 初
世 擊 壤 有 古 戲 俗 尙 難 同 樂 意 未 應 異 餉 飲 慰 阡 陌 吉 草 以	壯 行 矯 點 對 張 雙 鑼 鏜 有 節 兩 鼓 濁 以 鏜 始 用 緩 聲 作 漸 以 繁
里 社 團 羣 稠 臨 田 勉 租 耨 舉 趾 一 何 勤 分 行 無 錦 繡 會 聞 陶 唐	音 暢 踴 躍 若 將 舞 回 環 紛 相 向 習 慣 手 從 心 興 酣 頭 應 足 不 須
族 協 自 然 亦 有 大 沙 羅 銅 鑼 響 遠 震 終 曲 鳴 相 合 治 然 成 一 亂	辨 律 呂 焉 知 有 宮 角 鏘 鏘 復 鏘 鏘 坎 坎 又 闌 闌 音 從 心 所 樂 節

그림 2 농악(農樂) 한시(이정직)

저 시(詩)도, 어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악 풍물패의 한 모습이다. 나발을 길고 쭉쭉하게 불어 대면서 농악대의 시작을 알린다. 행군하는 농악대의 깃발은 바람에 펄럭인다. 쌍징과 양북, 농악대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물론 신명나는 쇠가락, 상쇠가 이끌고 있을 것이다.

이 시는 김제가 낳은 근대기의 큰 학자로 거질의 문집을 남긴 석정 이정직선생



사진 3 호남여성농악 정기발표회 (2017, 사진 송기태)



사진 4 곡성 죽동농악 샘굿(2019.6.7.)

(1841-1910)이 지은 ‘농악(農樂)’ 이란 제목의 한시 한 구절이다. 이석정이 1910년에 별세했으니, 최소한 이 글은 1910년 이전,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농악(農樂)’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발 불고 깃발 펴려고 - 농기, 용기, 덕석기

이 시를 보면 나발을 불고 깃발을 펴려고는 장면이 처음에 묘사된다. 농악패의 깃발은 농기(農旗)와 영기가 기본인데, 이를 말함이다. 용(龍)을 그려 넣은 용기(龍旗)를 편성하는 곳도 있다는데 이와도 연관될 수도 있겠다. 지역에 따라서는 ‘덕석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참여한 농정들의 통제는 군대와 비슷하다고 했다. 흥이 나서 제멋대로인듯싶지만 상쇠의 지휘 아래 ‘오방진’과 같은 진놀이를 척척 해내는 모습.

‘이사(里社)’와 ‘김매기’를 말하는 대목에서는 농악의 전래적인 한 모습인 두레농악의 현장을 볼 수 있다. 농악은 여러 갈래로 나누지만, 보통 농민들의 공동체 노동과 관련되는 두레농악, 민간 고유의 축원농



사진 5 고흥 월포농악 문굿(2005.4.7.)



사진 6 구례 잔수농악 마당밧기(2008.2.9.)

악, 재승(才僧)들이 참여하는 걸립농악, 전문 예인 집단의 연예농악으로 구분한다. 물론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한다. 농사판에서 노동의 수고를 덜면서 능률을 높이고 한편으로 함께 어울려 술과 음식을 나누는 것. 농악 본연의 모습이라. 하여 이 시에서도 ‘질그릇 동이에는 탁주 넘치고’, ‘먹고 마시며 밭 두둑에서 쉬니’라 했다.

그리고 징과 북 등이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번잡하고 어지럽게 펼쳐지고’, ‘흥이 오르면서 덩실 덩실 춤추고 머리와 발이 응하느’ 신명나는 놀이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양북은 우도농악 판굿 구정놀이의 북놀이를 연상시킨다. 우도 농악에서는 보통 치배(잼이)의 편성이 쇠 4, 징 2, 장구 5-6, 북 2인인데, ‘쌍징’과 ‘양북’이라 했으니 치배의 편성까지도 볼 수 있다. ‘빙빙 돌아 어지러이 서로 향하네’라는 구절에서는 소고잼이 가운데 채상소고를 쓰고 상모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징, 북과 함께 구리나발과 대사라 풍물도 보인다. 나발은 구리로 만든 두 자 길이의 나발을 말한다. 우도농악 치배 구성에 나발과 새납이 있는데, 구리나발의 긴 울림으로 시작하는 농악패의 모습이다. 구리나발

은 고구려 고분 안악 제3호분 벽화에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먹고 마시며 밭 두둑에서 쉬니

이 시에는 또한 장장, 쟁쟁, 감감, 전전 등 쇠가락과 부가락 구음이 등장하고, 여러 악기 소리가 자연스레 어울리고 멀리 진동하는 쟁소리에 합해져 가락을 이룬다는 표현도 보인다. 몸짓과 소리를 구음으로 표현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왔던 우리 무형민속유산의 한 모습이 한시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기에 ‘율려(律呂) 분변할 줄 모를뿐 아니라’, ‘궁각(弓角) 있는 줄 어찌 알리오’ 했다. 정형화된 음악이나 음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지만, 신명이 나고 그렇지만 잘 전승되어온 다는 말일게다.

이처럼 이석정의 한시 ‘농악’은 전래적인 두레 농악 현장의 연행 장면을 섬세하게 인지하여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했다. 악기를 연주하는 치배(잼이)와 여러 종류의 분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는 잡색(뒗치배), 그리고 각종 깃발을 드는 기수(旗手)의 모습, 그러면서도 ‘나누어진 행렬 섞이어 엮히는법 없는’ 신명의 현장을 그림 그리듯 읊고 있다. 또한 ‘먹고 마시며 밭 두둑에서 쉬니’, ‘질그릇 동이에 탁주가 넘치고’, ‘주고 양보하고 더욱 순박하네.’ 라 하여 격양(擊壤)의 정경도 읽을 수 있다.

농악 農樂

적 잡으려면 먼저 괴수 잡아야 하고

擒賊先擒首

풀을 제거하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법

除草當除根

그러므로 농정회(農丁會)가 있나니

所以農丁會

그 인원의 통제는 군대 통제 같아라

部勒如用軍

구리나발은 처음에 장하게 뿔어내고
 행군하는 깃발은 상대하여 벌려 필력이네
 쌍징의 울림은 절도 있고
 양북의 소리는 깊이 울리네

銅角噴初壯
 行旛颺對張
 雙鑼鏗有節
 兩鼓淵以鏜

처음에는 느린 소리 지었다가
 점점 번잡한 음으로 퍼져 나가네
 덩실 덩실 춤추려는 듯
 빙빙 돌아 어지러이 서로 향하네
 습관적으로 손은 마음 따르고
 흥 오르면 머리와 발이 응하네
 율려(律呂) 분변할 줄 모를뿐 아니라
 궁각(弓角) 있는 줄 어찌 알리오

始用緩聲作
 漸以繁音暢
 蹲蹲若將舜
 回環紛相向
 習慣手從心
 興酣頭應足
 不須辨律器
 焉知有宮角

장장(鏘鏘) 다시 쟁쟁(鎗鎗)
 감감(坎坎) 또 전전(闐闐)
 음은 마음 좋아하는 바 따르고
 절주는 자연스레 어울리네

鏘鏘復鎗鎗
 坎坎又闐闐
 音從心所樂
 節族協自然

또한 큰 사라(沙羅) 있어
 요란한 소리 멀리 진동하네
 곡 끝남에 울림 서로 합하여
 흡연히 한 끝 가락 이루네

亦有大沙羅
 訇訇響遠震
 終曲鳴相合
 洽然成一亂

이사(里社)에 단란히 무리 지은 짝이요
 밭에 임하면 힘써 밭갈아 김매도다
 행동거지 어찌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里社團羣耦
 臨田勉耨耨
 舉趾一何勤

나누어진 행렬 섞이어 엮히는법 없네	分行無錯繆
일찍이 들으니 요임금 시대엔	曾聞陶唐世
격양(擊壤)이란 옛 놀이 있었다지	擊壤有古戲
시속에서 숭상하는 바는 다르지만	俗尚雖不同
즐기는 뜻은 응당 다르지 않네	樂意未應異

먹고 마시며 밭 두둑에서 쉬니	餉飲憩阡陌
푸른 풀 자리로 삼네	青草以為茵
질그릇 동이에는 탁주 넘치고	瓦盆溢濁醪
주고 양보하고 더욱 순박하네	酬讓更厖淳
저녁 노을은 안개 낀 나무에 빛나니	夕霞耀烟樹
빛나는 비취 빛 섞여 비단결 같네	彩翠錯成繡
술 취한 채 마을로 돌아오니	帶醉歸村巷
맑은 바람 베옷 소매에 일어나네	清風動褐袖

밤 중 거닐며 닷 한번 베푸니	踏暝更一張
여음이 느린 걸음 따르네	餘音隨緩步
이는 실로 상고의 풍류러니	茲實上古樂
어찌 소호(韶護)보다 못하리오	詎減聞韶護

참고문헌

- 김제문화원, 『석정 이정직 유저(石亭李定稷遺著)』(IV)-향토문화자료-제20호-, 2001
- 김정현,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문화재』 42-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김희태, 「고전 용어 “농악(農樂)”과 석정 이정직의 한시(漢詩) “농악(農樂)”」, 『성산문화』24, 김제문화원, 2012.
- 이경엽·김혜정·송기태, 『유순자 상쇠와 호남여성농악』, 심미안, 2012.
- 이경엽, 「농악이란 무엇인가」,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 국립민형유산원·문화재청, 2014.

1914년과 1938년 사진으로 읽는 민속무형유산, 강강술래

1914년 진도 강강술래, 가장 오래된 사진

기와집이 뒤로 보이는 마당에서 하는 강강술래. 자세히 보니 왼쪽에 글씨가 보이는데 촬영일자와 장소, 명칭이다. 180도 회전(반전)을 하니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1914년 6월 18일.

음력으로 보면 5월 25일이다. 목요일. 음력 5월에는 5일이 단오이며 중기인 하지와 절기인 망종 또는 소서가 들어있다. 악월(惡月) 또는 고월(皁月)이라고도 한다. 1914년은 5월 윤달이 든 해이다. 저 사진을 찍고 일주일 지나서 6월 24일에 윤 5월 1일이 시작된다.



사진 1 1914년의 진도 강강술래 현장(국립중앙박물관 건판2784, 이류지엄 인용)

大正三,六.十八. 珍島邑 カニガニスレ

1914년 6월 18일 진도읍 강강수레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강강수레 사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시절의 유리건판 사진. 조선총독부 축탁으로 있던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가 조사한 자료이다.

촬영장소로 “진도읍(珍島邑)”이 표기되었다. 현재의 “진도읍”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읍(邑)”은 읍성(邑城)이나 읍치(邑治) 같이 읍=고을을 뜻한다. 사진찍을 무렵 지금위 진도읍은 부내면이라 하였다. 1917년 진도면으로 개칭하고 1979년에 진도읍으로 승격한다. 1979년 처음 들어선 행정지명인 “진도읍”과 1914년 사진상의 “진도읍”은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도리이 류조는 인류학·선사학 조사를 목적으로 1914년 6월 15일에 서 19일 사이 진도를 방문하였다. 조선반도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인종과 문화 조사 일환이었다. 사진 촬영기사 사와 순이치(澤俊一)가 함께 하였다.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 사료조사 제4차였다. 당시 조사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에서 주관하였다. 진도에서 찍은 사진 17장이 전한다. 여자 체격측정(2장), 남자 체격측정(2장), 강강수레, 제공소(祭供所), 십일장 모내기, 금골산 오층석탑 원경(이상 각 1장), 십일장 지석묘(2장), 진도읍부근 지석묘(7장) 등이다.

진도를 조사한 4차 조사는 4월 14일 경성을 출발하여 대구, 경주, 포항, 광주(5.12), 진도(5.16), 제주(5.18), 해남(6.12), 진도(6.15), 완도(6.20), 여수(7.2), 순천(7.4), 구례(7.4), 보성(7.9), 장흥(7.12), 강진

(7.13), 해남(7.16), 나주(7.20), 화순(7.10)의 일정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지방국 제1과의 사업으로 실시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1910-1913년 고건축·고적 조사와 학무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1911-1916년 인류학·선사학 조사를 통합하여 1916년 4월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주관하도록 조치하였다.

도리이 류조는 1911년부터 1923년까지 9회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3,777매의 유리건판을 촬영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8,000여장의 유리건판 가운데 10%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カニガニスレ”는 “강강수레”로 읽으면 어떨까 싶다. 앞 부분 “カニ”의 경우 “강” 음이 나는데, 첫 글자로 오면 “강”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사진을 소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리건판 공개 누리집 설명문에는 “강강수월래” 적고 있지만, 1914년 당시 조사팀은 “강강술래”로 들었던 것이 아닐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강수월래”와 “강강술래” 표기는 중첩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강강술래”로 검색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저작물은 1967년이다. “강강수월래”는 1930년이다. 1949년 호남신문 기사에는 “강강수월래” 가사(歌詞) 통일안을 전남 공보과(全南公報課)에서 제정 발표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명칭은 “강강술래”이다.

건물을 보자. 맞배지붕이 잇대어 있다. 우선 용마루에 적새 3단(암기와 3장 적층)이나 막새나 망와 등이 보이지 않는다. 관아의 권위를 의미하는 건축 부재인데 보이지 않으니 민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민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보이는 방향으로 오른쪽 삼칸 건물은 한쪽이 드나드는 문 구실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대문채로 보기도 애매하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일까. 혹시 집 안에 있는 중문으로 보아야 할까.

오른쪽 문 건너에서 여러 명이 강강술래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총 각들도 있을 것 같다. 가운데 칸은 판장으로 가렸다. 왼쪽 칸은 조그만 창문이 있다. 어쩌면 가운데 칸은 헛간이고 창문있는 그 방은 마당쇠가 있을 것 같다.

왼쪽 칸은 판장문이 있다. 부엌일까. 그런데 문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부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다. 직접 출입하기는 너무 높다는 것. 계단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바깥쪽으로 출입문이 있었을 것 같다.

돌담은 담쟁이로 덮였다. 6월이니 녹음방초 한창일 거다. 지붕 너무로 제법 큰 나무들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어쩌면 개인 민가는 아닐 듯 하다. 왼쪽에 건물 지붕이 조금 보인다. 우진각 지붕일까, 팔작 지붕일까.

정면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 설소리꾼인 것 같다. 그 뒤에 한사람은 몸은 보이지 않지만 왼쪽으로 발을 딛고 있다. 환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즐기는 모습도 보인다. 남도 민속의 “신명”과 “흥”, 말 그대로이다.

1938년 장흥 원도리 당산나무와 강강술래

1938년 5월 송석하선생이 조사한 민속현장, 장흥 원도리의 강강술래 사진이다.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구 원도마을. 2021년 8월 찾아가 보니

사진 속의 당산나무는 그대로 있었다. 건너에는 고층 아파트 숲이 들어섰다.

저 사진은 1938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다. 송석하의 ‘향토문화를 찾아서’ 장흥 기사 가운데 다섯 번째 “民俗의 가지가지”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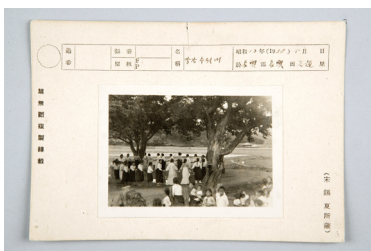


사진 2 1938년 5월의 원도마을 강강술래(송석하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인용) - 마을에서 읍내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나무는 밑둥은 남고 윗부분은 자라지 못했다. 왼쪽 나무도 큰 가지 하나는 못 자란 것 같다. 가운데 아래 등에 얹힌 꼬마는 지금은 85세쯤일 듯하다.

사진 3 송석하 조사자료 원본 이미지(국립민속박물관, 이류지엄 인용)



사진 4 1938년의 나무는 밑동에 조그만 생채기가 있었는데 83년이 지나면서 꼬마들이 끼어다닐 정도가 되었다.

舞踊

유독히 장흥 뿐만 아니라 순천, 보성, 해남, 완도, 진도 등의 해안지방 일대에 정월 上元의 저녁이나 8월 추석의 밤에 젊은 부녀자의 民俗圓舞인 ‘강강수월래’가 있는 것은 전에 소개한바 누차 있거니와 강강수월래는 한자로 ‘强羌水越來’라고 하는 전설이 있으나 이는 附會를 위한 附會에 지나지 못하고 舞踊學上이나 민요 발달의 자취로 보아서는 반드시 수백 년 전의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고대인 古舞踊 형태의 하나라고 斷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용에 수반되는 민요의 곡조는 그간 불명하였으나 이제 실제로 조사하여 본 즉 진양조가 주가 되고 그 다음 점차로 急調로 급템포로 변하는 것이다. 무용은 비교적 심플하나 그 반면에 소박한 맛은 나쁘게 세련된 것 보다는 수배 優雅하다고 하겠다.

지금은 ‘강강술래’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저 때는 ‘강강수월래’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자 표기 ‘强羌水越來’는 부회를 위한 부회(附會)라 언급하고 있다.

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인간, 문화재 무송 박병천』을 보고서이다. 진도

출신으로 가무악의 완성자라 할 무송 박병천(1932-2007)의 일생을 시대사와 사회사정을 함께 버무려 썼다. 당시 편집인(김태영님)에게 가객(歌客) 박덕인(朴德寅) 관련된 『은파유필』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였다. 『은파유필』은 무정 정만조(1858-1936)가 진도 유배기간 중 전반기(1896-1899)에 기록한 생활문화현장의 시집이다. 정만조가 “가객 박덕인에게 주다[贈歌者朴德寅]”라는 시 제목 옆에 세주를 기록했다. 유배객이 받은 감동이 그대로 전해진다.



사진 5 1945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 왼쪽 하단의 장방형이 장흥초등학교



사진 6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구 원도마을 당산나무(2021.8.4.) -오른쪽 나무는 윗가지가 자라지 못했다. 왼쪽 나무 건너로는 아파트 숲이 들어 섰다. 이 동네출신 조정철 친구는 선고장(조행근, 1927-2017)께서 막걸리를 몇 말씩 나무에 부어주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생태적으로는 양분의 공급이고 마을 신록으로서의 정성을 모은 것이리라. 동네에는 당굴이 있었고 백중에는 당산나무에서 매구를 쳤다고 한다.

가객의 나이는 70여 세로 모든 가곡의 고상함과 속됨, 맑음과 탁함, 느림과 빠름, 슬픔과 기쁨을 최고로 잘 하였다. 그것을 폐한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나를 위해 비로소 펼친다고 하였다. 또 춤을 잘 추었는데, 가야금 및 통소를 부는 것보다 더 잘하였다.[歌者 年七十餘 凡歌曲 雅俗清濁緩促哀愉無不極善 廢之二十年餘 爲余始發云 又能舞 尤工於伽倻琴及吹簫笛]

박덕인은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명인 박종기(1880-1947)의 부친이다. 박종기의 형님 박종현의 손자가 박병천이다. 국악명가로 내림이 있다.

『인간, 문화재 무송 박병천』에는 강강술래를 설명하면서 “장흥 지도리”로 표기하고 있다. 강강술래가 진도와 해남 일원만이 아니라 육지부 등 여러 곳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리”는 어진 낱설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송석하의 조사 자료를 보니 “장흥면 지도리”라 되어 있다. 자세히 보니 조사카드에 “元道里”로 표기했는데 약간 흘림체라 “元”을 “之”로 보고 이를 한글로 “지”로 표기해 버린 것 같다.

무정 정만조의 『은파유필』에는 강강술래를 보고 지은 시가 있다. 강강술래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1914년 진도 사진은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1938년 장흥 사진은 내륙에서도 성행된 민속놀이였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추석 잡절 秋夕雜絶

높고 낮은 노래 호응이 천천히 돌아감에
한바탕 서성거리다 한바탕 배회하는구나

高唱低謠緩緩回
一番延佇一徘徊

여인의 마음이란 사내들 오기만 바랄 뿐
강강술래 할 때면 또한 오리라

娘心只要郎來得
強強來時亦是來

이날 밤 여러 집의 여자들이 달빛을 받아 밟으며 노래를 불렀다.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 여자들이 느린 소리로 호응하기를 “강강술래”라 하였다. [是夜 家家女子 帶月踏歌 一女子唱之 衆女子曼聲應之 曰強強須來]

이날 저녁에 걸어서 성 위에 이르러 강강술래 노래를 듣다
是夕步至城上 聞唱強強來曲

겹바지 훌치마를 담색으로 지어 입고
무리 지어 문을 나서 구름머리 쌓는다
좋은 계절 날 저버려 빨리 지나가고
좋은 밤에 그대들은 강강술래를 부른다
춤추는 모습은 돌아다 흠어져 다시 합하고
노래는 화미하고 더더 슬픈 듯한 가락이라
오늘밤 달 즐기다 다 보내버렸나니
이제 길쌈 등불 밝혀 세상 일 재촉하리라

疊裋褙裙淡色裁
出門隊隊髻雲堆
芳辰背我忉忉去
良夜須君強強來
舞貌便旋離復合
歌音靡曼樂如哀
佳歡消盡今宵月
從此紡燈歲事催

참고문헌

- 장흥문화원, 『長興 地理志·邑誌모음』, 향토자료총서 제1집-, 1992.
장흥문화원, 『70년전의 長興의 文化遺蹟과 民俗 현장-1938년, 장흥 향토문화를 찾아서-(송석하)』, 『장흥문화』 2010, 54-69쪽.
국립민속박물관, 『송석하 -한국민속의 재음미 上·下-』, 2004.
윤여정, 『대한민국행정지명1』-전남·광주편-, 향지사, 2009.
박명희·김희태 역해, 『은파유필(恩波濡筆)』(정만조 저), 진도문화원, 도서출판 온샘, 2020.
이치헌 글, 김태영 기획·편집, 『인간문화재 무송 박병천』, 문보재, 2021.



호남학 산책 문화재창

인쇄 2022.10.27

발행 2022.10.31

저자 김희태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s://www.hiks.or.kr>

편집·제작 (주)스케치북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4

T 062-714-1776 E sketchboook@naver.com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08-41-1

ISBN 979-11-90608-37-4 (세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저자에게 있습니다.